

석사학위 논문

하근찬 소설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 연구

지도교수 : 문 성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영 임

2006년 6월

석사학위논문

하근찬 소설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 연구

지도교수 : 문 성 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영 임

2006년 6월

하근찬 소설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19일



제출자 강 영 임

강영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문 초록>

하근찬 소설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 연구

강 영 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지금까지 하근찬 소설연구는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민족적 수난으로 인식하고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형상화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가라는 측면에서 일부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¹⁾ 하근찬 작품에 반영된 전쟁과 식민지시대 현실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현대 사회를 소재로 한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전 시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대상황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작중 인물들의 행위나 심리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전쟁 체험의 형상화를 전쟁의 증언과 수난 극복의 의지로 구분하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하근찬 작품은 개인의 삶이 역사에 의해 굴절되는 전쟁의 비정함을 육체의 훼손, 순수한 세계의 파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여인들의 수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실에 순응하거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06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Ⅲ장에서는 식민지체험의 증언을 식민지 현실과 대응양식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일본이 저지른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식민지 교육을 통하여 황국신민을 만드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지식인과 민중들의 대응양식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통해 현실 극복의식과 강한 민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에 대한 회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에서는 역사와 쉽게 타협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식민지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광복 후에도 철저한 반일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태도를 보여주었다.

Ⅳ장에서는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산업화의 부조리와 전통의 계승으로 구분하여 모순된 현실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인간존중의 사상과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승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노년에 접어들면서 존재에 대한 실존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과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노년에 접어드는 작가의 심경상의 변화와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그의 문학은 현실체험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보편타당성을 지향함으로써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족적 수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지와 끈기를 갖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민중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현실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활 태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차 례

<國文抄錄>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3
3. 연구 방법	6
II. 전쟁 체험의 형상화	9
1. 전쟁의 고발	10
2. 수난의 극복	37
III. 식민지 체험의 증언	47
1. 식민지 현실	48
2. 대응양식	57
IV.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	71
1. 산업화 사회의 부조리	72
2. 전통의 계승	76
3. 삶에 대한 성찰	83
V. 결론	87
<참고문헌>	90
<작가연보>	92
<Abstract>	95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현대사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산업화로 대변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어져 왔다.

해방이후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일어난 전쟁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좌절을 안겨 주었으며 그것은 가치관을 혼란시켰고 기존 질서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전쟁 후 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분단과 이산, 정신적 상처와 육체적 훼손, 산업화 사회에 따르는 빈부의 격차, 서구화에 따른 전통의 파괴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런 극복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은 우리의 정신세계나 문학적 상상력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작가들은 이런 시대정신을 작품에 이용해 왔다.

195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은 대부분 일제의 지배와 전쟁 등 당시의 암담하고 무질서한 우리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비교적 치밀하게 파헤쳐 다양한 체험으로 형상화 하였다.

신세대 작가로 일컬어지는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오성환, 선우휘 등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무력감 등을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소시민들의 내면 세계와 불안, 허무의식, 절망으로 형상화시켜 표현하였다. 전쟁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를 관념적으로 작품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하근찬은 이런 지적 유희에서 벗어나 인정과 향토성이 짙은 농촌을 배경으로 그들이 겪는 민족적 수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하근찬은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하여 『수난시대』가 당선된 후 70여 편

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일제 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현실을 문제 삼았다. 전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그리면서도 항상 현실에 순응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거나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역사적 시각으로 담아 내어,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하였다. 1950년대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사회적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작품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썼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제치하와 관련된 작품으로 소재를 변모시켰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진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한 소설로 창작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3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한 것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대개 전쟁을 형상화한 작품과 일제치하 관련 사실을 전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연관시켜 일부 작품들만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은 몇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생존해 있는 작가라는 점과 그가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으나 실제 그의 소설에서는 직접적인 전투 장면이라든지 전쟁의 현상이 부재되어 있어 기존 전쟁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그의 소설들은 소외되어 왔다는 점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전쟁이라는 소재를 즉물적으로 형상화한 그의 대부분 작품들이 민족적 자아의 각성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1960년대 이후 문단의 주된 흐름과는 거리가 멀어, 이 시기의 연구사에서 제외되어 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하근찬이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편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는 못했으나, 시대정신에 따른 자기만의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고집스러움 혹은 독창성 때문이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거쳤던 민족적 수난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사회를 소재로 한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현실인식과 대응의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인물들의 내면심리와 행동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작가의 시대정신이 주제를 형상

화하여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형성하였음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1970년대 이후의 작품들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문학세계 전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사

하근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근찬에 대한 연구는 다른 1950년대 작가들에 비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존 작가이므로 학술적 차원의 체계적인 논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간의 하근찬 문학 연구업적들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주제론적 연구이다.

유종호는 하근찬을 독자들에게 전쟁 현장을 목격시키지 않고 전쟁의 야수성을 가장 다부지게 고발한 작가이며 민족의 정한을 읊조리는 민요시인으로 보고 있다. 하근찬 소설 세계의 핵심은 작품의 배경인 농촌과 농촌 인물들에 대한 혈연적 동정이며, 그들의 관점에서 가난함과 억울함, 설움을 다룸으로써 겨레의 수난과 삶의 실상을 정직하고 참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제치하를 형상화한 작품에 대하여 “일제치하의 상기는 그대로 현실의 획일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상기인 셈이다.”라고 하여 8·15이후 현실에 대한 묵시적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¹⁾

구중서는 하근찬의 작품세계가 50년대 후반에 무지하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이 획기적이며 이야기가 생활 속의 절실한 인정과 역사적 수난의 아픔이라고 했다. 그 아픔을 이기고 일어서는 삶에의 강한 집념인 점에서 당연하고도 새로운 본령을 일깨웠고 자신의 체험과 어린 시절을 소재로 일제 말엽의 사회상을 그려 가열된 현실인식을 개재시켰다고 보았다. 『왕릉과 주둔군』에서

1) 유종호, “비극추구의 민요시인”, 『현대한국문학전집』 3, 신구문화사, 1967, pp.462-463.

참고로 이 글은 『산울림』, 한겨레 1988, pp.375-376에 있는 “농촌 사람의 눈으로”와 동일한 것이다.

토착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으며, 『삼각의 집』을 통해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일제치하의 과거를 회상하는 『노은사』를 통해 민족의식과 주체의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하였다.²⁾

전영태는 하근찬을 공포의 상황에서도 훈훈한 정이 있고 피가 통하는 인정이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순박한 생활감정을 그리는 ‘비극 추구의 민요시인’으로 정의했다.³⁾

김윤식, 정호웅은 『한국소설사』에서 『수난이대』, 『흰 종이수업』에 대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이 들어 있고 『야호』는 연민의 눈으로 그려내는 평범한 농민들의 수난상으로 절실함과 호소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⁴⁾

조남현은 작품집 『수난이대』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며 철저한 객관적 거리감으로 작가의 가치 평가보다는 독자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⁵⁾

권영민은 『일본도』에 대해 『수난이대』에 이어 인간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구현하였으며 소년들의 진실한 눈으로 현실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원선생의 수업』의 원영배를 통해 과거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⁶⁾

천이두는 전쟁과 관련한 작품, 일제치하와 관련한 작품, 기타 일상소재의 작품의 3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기와 2기는 전쟁의 공분이라 할 수 있으며 3기는 평화의 찬가라고 하였다. 주된 연구의 대상은 1기와 2기 작품들이며 생생한 현장감으로 고발 문학 이상의 본질적 차원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⁷⁾

단일작품 연구로는 『산울림』, 『산에 들에』, 『야호』를 분석하였다. 『산울림』에서 세마리의 죽음이 유린당한 동화의 세계라고 하였고 『야호』를 하근찬 문학의 성과를 종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편소설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과시하기도 한 획기적인 작품이라 하였다.⁸⁾

2) 구중서, “하근찬의 문학세계”, 『산울림』, 한겨레, 1988, p.386.

3) 전영태, “담담함, 또는 정결한 결벽성”, 『산울림』, 한겨레, 1988, pp.392-401.

4) 김윤식, 정호웅, “구세대 작가들의 역량”,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418.

5) 조남현, “상흔 속의 끈질긴 생명력”, 『산울림』, 한겨레, 1988, pp.405-411.

6) 권영민, “현실적 상황과 소설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 31, 1978. p.318.

7) 천이두, “전쟁에의 공분과 평화의 찬가”, 『산울림』, 한겨레, 1988, pp.412-421.

김병익은 장편 『야호』의 세계를 한의 세계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체념으로서의 한이 아니라, 전쟁의 비극사에 대한 공분과 분노를 터뜨리는 극복론으로 한의 세계로 설명하였다. 9)

이경수는 하근찬은 일제치하와 6·25를 동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의 문학을 피해자의 문학으로 정의하고, 그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풍겨나는 한은 더욱 처절한 것으로 보았다. 『수난이대』에서 잘려 나감의 모티브를 국토 분단의 상징으로 보았고, 장편 『야호』를 일본인들에 대한 야유와 냉소로 반일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작품의 중요 고비마다 반복되는 방뇨의 모티브에 주의하였으며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한을 유년시절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윤리적 조절 장치로 봄으로서, 한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마지막 세대의 작가라고 평가하였다. 10)

두 번째 부류는 인물 유형에 관심을 두는 연구이다.

구중서는 하근찬의 작품 인물 중에는 영웅적인 인물이나 의지적인 인물이 없고 서민으로서의 ‘아버지’와 ‘선생님’ 그리고 ‘아들’, ‘아동’이 등장하며 소년 소녀를 많이 등장시켜 단순한 눈으로 세계를 직관하고 그들의 소망이나 꿈의 좌절을 통하여 냉혹한 현실을 부각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11)

권오근은 하근찬 소설에 나타난 인간상을 분석하여 주제를 이루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수난이대』의 아버지 박만도나 아들 진수, 『분』의 덕이네를 전쟁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상으로 분석하였다. 『흰 종이수염』의 동길이가 아버지를 전쟁의 상흔에 의해 패배한 대표적인 인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죽창을 버리던 날』의 아버지를 지식인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인간상으로 분석하였다. 12)

하지영은 작품집 『수난이대』, 장편 『야호』, 『산에 들에』를 대상으로 각각 작품에 드러난 인물유형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13)

8) 천이두, “동화와 그 살육”, 『현대한국문학전집』 13. 1963, p.493.

9)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 『산울림』, 한겨레, 1988. pp.376-385.

10) 이경수, “한의 예술적 승화”, 『문학사상』, 1988, 7.

11) 구중서, “하근찬의 문학세계”, 『산울림』, 한겨레, 1988, p.387.

12) 권오근, “하근찬 소설연구”, 경남대학교, 1997.

이정분은 초기 단편들과 『조상의 문집』 등 일부 일상 소재 작품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인물형은 ‘연민’의 미학으로, 소극적 저항형 인물은 ‘한’의 미학으로, 적극적 저항형 인물은 ‘빛’의 미학으로 설명하였다.¹⁴⁾

김수정은 전쟁관련 소설과 일제치하 관련 소설에 대하여 형상결손의 인물, 수동적 피해 의식의 인물, 비극적 세계 인식의 인물로 유형화하였다.¹⁵⁾

세 번째 부류는 모티브에 관심을 두는 연구이다.

김홍배는 『야호』, 『산에 들에』, 『작은 용』을 대상으로 불구와 훼손된 사체, 부자유스러운 혼인, 일제에 대한 상기, 전통예찬과 조상 숭배 등의 모티브를 분석하고 결론으로 민족적 수난에 대한 대응과 민족정신의 촉구를 들었다.¹⁶⁾

박혜원은 귀향 모티브를 중심으로 귀향 소설로 분류하여 이호철, 이범선의 소설과 비교하였다.¹⁷⁾

이상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근찬 문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단편소설 위주로 1950년대부터 60년대 작품을 연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70년대 후반기 이후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작품들에 반영된 현실 상황을 살펴보고 하근찬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작중인물을 통해 드러낸 작가의 현실인식과 대응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문학 연구의 출발점은 작품 자체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작가 정신도 작품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날 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13) 하지영, “하근찬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14) 이정분, “하근찬 소설에 나타난 인물형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15) 김수정, “하근찬 소설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16) 김홍배, “하근찬 소설 모티브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17) 박혜원, “하근찬 귀향 소설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이야기를 작중 인물들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때 작중 인물들은 창조된 제2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인물 창조 과정에서 작가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므로, 작중 인물의 분석은 작가 의식이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작가의 세계관을 읽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근찬은 항상 현실에 순응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거나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들을 창조하는 데 성공한 작가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중현실에서 다양한 현실 대응방법을 통해 작가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들의 현실인식이나 대응방법을 분석하여 작가의 이념을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역사주의적인 비평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하근찬의 생애와 외적환경들, 특히 창작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들과 관련시켜 작품을 정밀하게 탐구하고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또한 그의 소설들을 3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대 상황에 따른 작가의 생각의 변화와 작품에 변화를 끼쳤을 영향관계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각 시대상황에 따른 작중 인물들이 행위나 심리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시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인물들의 현실인식 및 대응양식이 어떻게 의미화 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허구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시대상황에 따른 작중 인물의 현실인식 및 대응양식을 고찰하는 일은 작가의 시대정신 및 현실인식 태도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이런 의식이 작품 주제로 형상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근찬의 작품세계를 전쟁관련 작품과 일제치하 관련 작품, 일상소재 작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소재 작품들을 전쟁관련 작품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관련 작품에서는 ‘전쟁 체험의 형상화’로 일제치하와 관련된 작품은 ‘식민지 체험의 형상화’로 일상소재의 작품은 ‘인생에 대한 통찰’로 분류하여 각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의 ‘전쟁 체험의 형상화’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배경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발표된 28편 중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수난 이대」를 비롯하여 「산중우화」, 「나룻배 이야기」, 「흰 종이수염」, 「홍소」, 「왕릉과 주둔군」, 「산울림」, 「붉은 언덕」, 「야호」, 「분」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전쟁의 고발’, ‘수난의 극복’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장 ‘식민지 체험의 증언’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 무렵까지 발표된 36편 중 「족제비」, 「일본도」, 「죽창을 버리던 날」, 「기울어지는 강」, 「32매의 엽서」, 「조랑말」, 「그 해의 삽화」, 「산에 들에」를 통하여 일제말엽에 겪어야 했던 ‘식민지 현실의 인식과 대응방법’ 그리고 광복 후 일본에 대해 재인식해 보는 ‘광복 후의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장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에서는 사회 문제를 지적한 작품 「삼각의 집」, 「낙도」, 「모일소묘」, 「겨울 저녁놀이」, 「전차 구경」, 「조상의 문집」, 「화가 남궁씨의 수염」, 「공예가 심씨의 집」 등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빚어지는 ‘산업화의 부조리’와, 우리의 전통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전통 계승방향’, 노년을 맞이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기존의 소설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탈피하여 하근찬의 평론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들」, 「전쟁과 수난- 수난이대」 등 가능한 전 장르에 걸친 자료를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II. 전쟁체험의 형상화

한국전쟁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강대국의 대리전이라든지 민족해방전쟁이라든지 또는 동존 상잔의 비극이라든지, 해석이야 어찌되었든 그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가공할만한 폭력이었다.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 수많은 이산가족,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한반도를 구속하고 있는 분단의 고착 등 전쟁이 가져온 불안과 동요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민족은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남북한을 합쳐 5백 20만 정도였다. 당시 남북한 총 인구를 3천만으로 추산할 때 6명당 1명꼴로 사망,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의 인명피해를 당하였다. 공장시설이나 주택 사회 기반 시설도 상당부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2백여만 명이 고아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으며 전체 인구의 20~50%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¹⁸⁾

이와 같이 한국 전쟁은 1950년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나타난 문학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모습을 작품 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는 그 작품들을 '전후소설' '전쟁소설'이라 부르고 있다.

1950년대 전후소설 작가의 관심은 전쟁에 대한 회의와 반성, 전쟁이 남긴 흔적 등에 쏠려 있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청년기에는 한국전쟁의 참혹성을 직접 목격하였다. 전쟁 수행에 주체적으로 임했던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문인에게 6·25전쟁은 폭력으로 작용했고 또 그렇게 인식되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나 비참함이 바탕이 된 무력감, 실의와 좌절, 패배주의, 불안 등을 주류적인 경향으로 소설을 썼다. 반면에

18)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pp.346-347.

동시대에 활동한 하근찬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식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극복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1. 전쟁의 고발

1931년 10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난 하근찬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던 일제말엽에 유년기를 보내면서 일제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의 나이 20세였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에 대한 청년시절의 체험은 처녀작이라 할 수 있는 『수난이대』로부터 한결같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 작품활동을 하게하는 그의 작품 세계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같은 연배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전쟁의 그늘 속에서 태어나 전쟁과 더불어 자랐고 또 꿈 많은 시절을 전쟁 때문에 괴로움으로 지낸 것만 같이 회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껏 내가 발표한 작품들의 대부분이 전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내 작품들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전쟁 피해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¹⁹⁾

성장기에 경험한 태평양 전쟁과 6·25전쟁은 그의 소설 거의 전편에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동안 교사 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죽음²⁰⁾은 그가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인간적인 절망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한 절망감은 작품 속에 일관성 있게 전쟁의 비인간적인 잔학상에 대한 치열한 항변과, 상실되고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평화에의 의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주제는 전쟁의 비인간적인 잔혹함에 대한 항변과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의지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시대적 주류에서 소외된 토속적 인간상이나 시대의 주류에 미처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로 되어 있다.

19) 하근찬,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들”, 『한국문학』 138호, 1985, p.66.

20) 하근찬은 1950년 8월15일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그의 부친이 그의 제자였던 청년에 의해 끌려가 학살 당한 아픈 체험을 안고 있다.(참조 : 하근찬, “그 주검들 사이에서 마치 기적처럼”, 『문학사상』, 1984, 6, p.100.

즉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체적 의지나 정치적 이념과는 전혀 관계없이 타율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삶을 유린당하는 피해자들이다.

소설의 무대는 거의 전부 시골 소읍이거나 농촌으로 되어 있다. 전쟁이나 역사의 흐름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무고한 농촌 사람들이 겪은 수난을 말하자면 나는 증언하듯이 소설을 썼다.²¹⁾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한 그의 문학은 전쟁의 피해 양상을 증언하듯이 소설화하였다. 전쟁 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전쟁 속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남겨진 채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처절함을 작품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려가는 이 땅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수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작품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다.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억울하게 불구가 된 사람들, 까닭 없이 고향을 잃고 부모처자와 헤어진 사람들…… 그러한 무고한 백성들의 수난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심대신 나의 내부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²²⁾

「수난시대」가 당선된 후 10여 년 동안 집요하게 전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 「낙뢰」, 「흰 종이수염」, 「홍소」, 「분」, 「왕릉과 주둔군」, 「산울림」, 「붉은 언덕」, 「나룻배이야기」 등의 단편과 「야호」가 그에 해당한다. 특히 그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전쟁으로 의해 큰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전쟁의 당위성이나 부당성도 판단하지 못한 채 전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분노하거나 저항하지도 않고 숙명처럼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힘없는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전쟁에 시달리는 시골 사람들 이야기 한 가지 주제만 놓고 작품을 썼다.

하근찬 소설은 특정한 이념이 배제되어 있으며 단지 역사의 회오리 중심에서 있는 민중의 삶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³⁾

21) 하근찬, “전쟁의 아픔, 기타”, 「산울림」 한겨레, 1988, p.4.

22) 하근찬, “전쟁 <컴플렉스>의 극복”, 「문예중앙」, 1981, 여름, p.223.

23) 하근찬, 이범선, 서종택 엮음, 「베스트셀러 한국문학선」 33, 소담출판사, 2002, p.226.

이렇듯 전후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창작활동은 전후작가로서 독특한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인식태도와 방법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주목해 본다면 전후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인식은 육체의 손상과 순수성의 파괴, 가치관의 혼란, 여인들의 한 등 네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 육체의 훼손

하근찬 작품들을 소재 중심으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6·25를 소재로 한 것들이고, 둘째는 일제 말엽의 이야기들이다. 그 중 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발표한 작품에는 대부분 전쟁으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와 후방에 있는 민중들의 수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쟁의 그늘이라 할까, 번두리라 할까, 그것이 활귀고 지나간 뒤의 참담한 삶들, 즉 전쟁의 후일담 같은 것과, 또 그것들이 밀어닥치고 있을 때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뒤에 남은 사람들의 비통한 양상을 주로 그렸다.²⁴⁾

그는 전쟁이 전후현실의 삶과 운명에 남겨 놓은 비극적인 상처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바로 전쟁의 가져온 죽음과 불구를 문제로 한 주로 육체성을 모티브로 다룬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육체성은 깊은 사고의 힘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전쟁 당시 교사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끼치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꼈다고 한다.

전투보다도 더 참혹하고 비통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은 부친의 죽음이었다. 반동이라 하여 학살당한 부친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가히 시체의 바다라 할 수 있는 처참한 곳을 더듬기도 했던 것이다. 그 시체들 전부 타살이어서 목불인견이었다. 나는 그 때 전쟁의 잔학성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소름끼치는 절망을 느꼈다. 어머니와 둘이서 시신을 찾아 가매장하던 그날이 마치 지옥의 하루 같던 일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다.²⁵⁾

24) 하근찬,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들”, 『한국문학』 138호, 1985. p.66.

25) 앞의 책, p.69.

작가의 이러한 체험은 『야호』의 한 대목에도 반영되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목불인견이었다. 연장들이 마구 난무하고 있는 것이었다. 팽이가 사람의대가리를 찍는
가 하면, 쇠스랑이 사람의 얼굴을 긁어내고 있었고 삽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파고 들고
있었다. 산 사람의 머리가 쪼개지고 있었고, 산 사람의 어깨가 부서지고 있으며 산사람
의 가슴이, 산사람의 팔다리가 그렇게 마구 엉망지창으로 망그러지고 있었다. 생피가 마
구 튀고 있었다.

깨갱깨갱 깨갱깨갱 깡깡깡깡깡깡 -징징 -징징징징징징 -

팽가리와 징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동족이 동족을 말이다. 달이 흰
히 내려다 보고 있는 하늘 아래에서 말이다. 26)

그의 육체성은 신체결손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상된 육체성
은 그들의 손상된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육체가 곧 삶인 것이며
그것은 노동하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기차 안에서 본 상이군인의 모습과 언젠가 유럽 기행문에서 읽었던 ‘신
의료장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수난이대」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의 구상이 떠오른 것은 동해 남부선의 열차 속이었다. 1956년 가을 쯤 이었다.
(중략)

잡상인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잡상인이란 주로 상이군인들이었다. 팔 하나가 없거나
다리 하나가 없거나 혹은 얼굴이 형편없이 뭉개져 버린 말하자면 인간괴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품을 거의 강매하다시피하고 다녔다. (중략)

팔이 하나 잘려나간 사람, 다리가 하나 잘려 나간 사람, 얼굴이 끔찍하게 뭉개져 버린
사람…… 이런 인간괴편 같은 상이군인들의 모습에서 전쟁이라는 괴물의 수법을 볼 수
가 있다. 27)

전쟁에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 같은 전쟁을 치르고도 멀쩡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
들에게 갖는 이러한 반감 표출은 작가에게 커다란 충격을 남기게 된다. 이 체험은

26) 하근찬, “야호”,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10, 중앙일보사, 1997, p244.

27) 하근찬, “수난이대, 산에 들에”, “내 안에 내가 있다.” 엔터, 1997. p.253.

전쟁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하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외양만을 불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피해의식, 이유 없는 적개심 등을 품게 하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한번은 그런 열차 속에서 나는 어떤 잡지에 실린 기행문을 읽고 있었다. 어느 문인의 글이었는데 서구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글이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그 필자가 어느 도시의 뒷골목을 지나려니까, 신기료장수가 앉아서 구두를 고치고 있었다. (중략)

아들은 2차 대전에 죽고 자기는 1차 대전 때 한 쪽 다리가 이렇게 돼서 신기료장수로 연명해 간다면서 무릎 밑으로는 잘려나간 반 토막 다리를 끄떡 들어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 대목을 읽은 나는 옹기! 됐구나 싶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구상이 떠올랐는데²⁸⁾

이 신기료장수의 대를 이은 비극은 일제치하와 6·25전쟁의 두 가지 비극을 한 데 엮을 수 있는 소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 열차에서의 경험이 『수난이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으로 형상화 된다.

『수난이대』는 일제치하와 전쟁이란 민족적 비극을 겪는 두 세대로서의 아버지 박만도와 아들 진수에 걸친 이대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의 거대한 조류에 휘말려 불구자가 된 두 부자의 상봉 장면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과 주인공 시점을 혼용하는 서술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점인물인 박만도의 눈으로 전후 현실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쩔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말았다.²⁹⁾

위 인용문은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진수에 대하여 이 시점 소유 인물인 아버지 만도의 마음을 서술자가 이야기 해주는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서술 방식을 택

28) 하근찬,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들”, 『한국문학』 138호, 1985. p.74.

29) 하근찬, “수난 이대”,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산서적출판사, 2005. p.7.

하고 있다. 아무개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더러는 소식도 없지만 아들 진수는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에 이렇듯 기뻐하는 것이다.

박만도는 대동아 전쟁 때 어린 진수를 아내에게 남겨둔 채 일제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어 아버지 대의 수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굴속에서 바위를 허물어 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장치를 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중략)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 알자 그만 으악!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폭신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 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 댔다. 절단 수술이 이미 끝난 뒤였다. 30)

박만도가 하는 일은 남양군도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는 일이었다. 더위와 강제 노동을 견디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허물고 흙을 나르며 드디어 비행장을 다듬어 내자 이번에는 굴을 파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도가 굴속에서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고 굴을 나오는 순간 연합군의 공습경보가 울렸다. 굴 밖으로 뛰쳐나가던 만도는 다시 굴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그만 한 쪽 팔을 잃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만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그 참담한 광경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담담하게 진술하는 박만도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현실의 부조리함을 증언하려 했을 것이다.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 곁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중략)

“진수야”

30) 앞의 책, pp.12-13.

“예”

“니 우짜다 그래 댜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댜심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수류탄 쪼가리래?”

“예”

“.....”

“얼른 낫지 았고 막 썩어 들어가기 댜에 군의관이 찢라 버립디다. 병원에서예”³¹⁾

살아서 돌아온 진수는 한 쪽 다리를 잃어버린 불구의 모습인 것이다.

태평양 전쟁으로 한 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와 6·25전쟁으로 한 쪽 다리가 잘라진 아들 진수의 상봉이다. 즉 이대에 걸친 수난이 확인되는 짧은 한 순간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박만도 부자간의 수난만이 아니라 전쟁을 겪으며 살았던 그 시대 민족적인 비극으로 확장시켜 증언하고 있다. 사실 전쟁의 폐해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심부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이들에게 까지 끼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난시대』에서 박진수 부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터에 내몰려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전쟁을 말하고 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쟁은 삶의 현장 그 자체라 볼 수 있고 이들에게 전쟁의 실체는 한 통의 전사통지서이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불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훼손을 당하지만 현실에 불만이나 항변을 드러내지 았고 순응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육체적 장애는 생존과 관계되기에 생존 기반과 삶의 기반의 상실이라는 또 다른 수난의 양상과 연결됨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이 일상에 가져오는 폭력을 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한다.

1959년에 발표된 단편 『흰 종이수염』은 전쟁이 초래한 부자의 수난과 정한을 그린 작품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미묘한 심리가 그려져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동길이는 강제 징용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팔 한쪽이 없어진 것을 본 후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줄 알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된다. 동길이는 사친회비를 내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났다. 목수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사친회비를

31) 앞의 책, pp.14-17.

마련하기 위하여 한쪽 팔을 잃은 모습으로 극장 프로 선전원(샌드위치맨)이 된 것을 안 동길이는 코끝이 매워지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다. 그러다 아버지의 수염을 건드리며 켈켈겔 웃어대는 창식에게 달려든 동길이는 그를 마구 깔고 몽갓다. 그것은 창식과 아이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 믿었던 아버지에게 대한 실망과 불만이 담겨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6·25전쟁 중 징용으로 끌려가서 한 쪽 팔을 잃은 장애를 당하면서 가족이 당하게 되는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난 이대』에서는 전쟁을 아버지 박만도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흰 종이수염』에서는 전쟁을 아들인 어린 동길이 눈을 통해 바라본다. 어린 동길이의 꿈이 좌절과 세대 간의 균열을 그림으로써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전쟁은 비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오던 날 동길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중략)

“사람이면 염치가 좀 있어야지 한두 달도 아니고, 이놈아!, 사, 오, 육, 칠, 녀 달 치나 밀렸잖아. 이 학년 올라와서 어디 한 번이나 낸 일 있나?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질 데려와!”

넙다 고향을 지르는 바람에 간이 덜렁했으나 동길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버지 집에 업심더” 했다.

“어디가고 없노?”

“노무자 나갔심더.”

징용 갔다는 말을 듣자 선생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럼 어머니라도 데려와.”³²⁾

동길이는 아버지가 노무자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친회비를 내지 못할 만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쟁이 전방에서 뿐만 아니라 후방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길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길이의 놀라는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휴우 한숨을 쉴 따름이었다. 동길이는 떨리는 손으로 한쪽 소매

32) 하근찬, “흰종이 수염”,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산서적출판사, 2005, pp.20-24.

부리를 들추어 보았다.

없다. 분명히 없다.

동길이는 어머니를 향하여 소리쳤다.

“어무이!, 아버지 팔 하나 없다.”

“.....”

“팔 하나 없어, 팔!”

“.....”

“잉?”

“.....”

말없이 돌아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꺾여 있었다.

동길이는 아버지가 슬그머니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곁에 가서 부엌에 붙어 서서도 곧장 아버지의 한쪽 소맷자락을 힐끗힐끗 건너 보았다.³³⁾

장용 나갔다가 2년 만에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온 아버지를 발견하고 동길이가 몹시 놀라고 있다. 어린 동길이의 눈으로 불구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팔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더욱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어무이! 아버지 팔 하나 없다.”라는 어린 동길이의 천진스러운 말은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고 침통하게 하고 있다.

팔과 손은 활동성을 나타내며 힘과 행위의 주체이다. 손을 일하고 생산하고 예술품을 창조하는 창조성을 지닌다. 또한 팔과 손은 다른 사람을 포옹하고 손을 잡을 수 있어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³⁴⁾

우리의 신체 중 팔과 손은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인 부분이다. 더구나 동길이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이다.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에게 팔을 잃게 된 것은 생존수단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게다가 그가 잃어버린 팔은 하필이면 오른쪽이었다. 목수 일을 다시 할 수 없게 된, 아버지의 귀향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 아버지가 돌아왔으나 개선될 희망이 없는 경제적 고통은 전쟁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겪어야 하는 삶에 대한 괴로움을

33) 앞의 책, pp.25-26.

34) 한혜선, “한국 현대소설의 인물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2, p.130.

보여주고 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팔이 하나 없긴 하지만, 이놈아, 니 사친회비 하나 못 댈 줄 아나? 지금까지 밀린 것 모두 며칠 안으로 장만해 준다. 방학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만해 준단 말이다. 오늘 너겨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약속했다. 문제없단 말이다. 애비의 맘을 알고 니가 더 열심히 핵교에 댕겨야지, 나 핵교 때리차 버릴랍니더가 다 뭐꼬? 이 놈의 자숙, 그게 말이라고 하는 기가?”

동길이는 그만 울먹울먹해졌다. 그러나 한사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중략)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훌쩍훌쩍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두 눈에서 솟구친 눈물이 양쪽 콧전으로 추적추적 건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동길이는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덩달아 코끝이 매워 왔다. 35)

아버지의 웃음 뒤에는 한이 서려 있다. 결국 팔을 하나 바치고도 극장 샌드위치맨으로 거리를 누벼야하는 그의 비극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전쟁에 참가한 동길이 아버지는 『수난이대』의 박만도와는 달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괴로움을 당하는 피해자로 그려진다. 동길이 아버지는 꼬마들의 조롱과 실직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주위의 놀림과 모멸을 물리치며 극장 선전원으로 취직하여 생활전선으로 복귀하여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상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귀향에 모든 것을 걸었던 동길이를 실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메가폰을 입에서 뱀 그 희한한 사람의 시선이 동길이의 시선과 마주쳤다.

순간 동길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뒤통수를 야물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희한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36)

극장 샌드위치맨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길이는 곁에서 놀려대는 친구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며 달려든다. 마지막 장면에서 동길이가 보여준 것은 자신의 일상을 파괴한 현실에 대한 반항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상처가

35) 하근찬, 「흰종이 수염」, 『한국남북문학 100선』42, 일산서적 출판사, 2005, pp.20-24.

36) 앞의 책, p.37.

한 사람의 육체적인 불구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흰 종이수염』은 동길이를 말리는 아버지의 탄식으로 끝나고 있어 아버지의 부상이 결국 일가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리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구가 되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로서 역할과 권위를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모습은 역사적인 수난이 당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을 어떻게 변조시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지를 고발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을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수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건강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작가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룻배 이야기』도 후방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전쟁의 아픔을 형상화하였다. 시골 마을의 나룻배 사공인 삼바우가 징병에 보낸 아들 용팔이가 돌아오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린다. 이 마을에서 징병에 끌려간 사람들은 삼바우의 아들 용팔이 뿐만 아니라 갑분의 애인 두칠이와 순녀의 남편인 천달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다. 두칠이는 사랑하는 갑분이와 아픈 어머니를 남겨 놓고, 천달이는 임신 중인 아내와 아버지를 남겨 놓고 전장으로 갔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이별은 바로 어려움 자체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징집 그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다.

“모르겠능교?”

“.....?”

“두칠이구마”

“뫼?”

“.....”

“두칠이라?”

그것은 두칠이가 아니었다. 도깨비였다. 눈이 하나밖에 없었다. 콧대추같이 녹아 붙었고 귀도 한 개는 고사리처럼 말려들었다. 온 얼굴이 서투른 다리미질을 해 놓은 것 같았다. 뺨들뺨들 윤이 나는 빨간 살점이 목덜미까지 흘러 내렸다. 후줄근한 군복을 걸치

고 있었고, 이 좋은 봄날에 무슨 놈의 장갑을 한 짝 끼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개라도 때려눕힐 그림 몽둥이를 지팡이 삼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찌 두칠이란 말인가? 그러나 자세히 보니 정말 어딘지 두칠인 것 같기도 했다.³⁷⁾

삼바우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채로 귀향하는 두칠이를 배에 싣게 되고 또한 천달이의 유골도 배에 싣게 된다. 전쟁터에 갔던 두칠이는 지뢰를 밟아 외모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멀쩡했던 두칠이의 모습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전쟁의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다.

“그래 죽는건 호강이구마. 지뢰랑 기 있는데 ……”

“지뢰가 뭐고?”

“그런기 있십더, 밟으면 툭 터지는 폭탄인데, 나도 구만 그걸 안 밟았능교.”

“쫓쫓, 뭐할라고 밟았노, 그런 걸.”

“헹헹 …… 그걸 밟고 팔다리가 떨어져서 몸뚱이만 띠굴띠굴 구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저런 수가 있나.”

“배가 툭 터져서 줄줄 쏟아지는 창자를 끌어넣으며 죽는 사람도 있고…….”³⁸⁾

전쟁으로 ‘도깨비’ 같은 모습이 된 두칠이는 냉엄한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도깨비같이 추해져버린 두칠이의 모습에 사랑하는 갑분이 마저 돌아서고, 이런 갑분의 쌀쌀한 태도에 두칠이는 절망한다.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훼손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훼손을 불러오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린다. 이러한 점은 하근찬의 이전작품 『수난이대』에서 보여주던 끈끈한 인간애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대비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달이는 전사해서 유골로 돌아와 아버지 양생원과 아내 순녀를 비롯한 가족들은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와 남편을 잃어버린 순녀,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양생원의 아픔을 나룻배의 이동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전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라는 요소를 철저히 파괴하는 사

37) 강신혜,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327.

38) 앞의 책, p.343.

회적 비극을 불러움을 생생히 고발하고 있다. 특히 떠난 자의 이야기보다도 남은 자의 이야기에 조명을 맞춰 서술됨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장에서 팔과 다리를 잃어가며 싸운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민족 모두가 전쟁의 체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징용 간 아들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고 딸과 혼인시키려고 했던 두칠이는 도깨비 같은 흉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로 인해 딸 갑분이가 불행해지자 삼바우는 비로소 망할 놈의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유린하는지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원망하기 보다는 “망할 놈의 세상”, “어찌 살꼬” 한탄하며 그저 운명 탓인 양 체념하며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홍소』는 어느 한적한 농촌을 배경으로 죽음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한 우편 배달부 판수의 갈등과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마을 어디에도 전쟁의 상처라든가 수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판수는 군청 병사계에서 마을로 보낸 편지를 배달하게 된다. 군청 병사계에서 온 편지는 바로 전사통지서인 것이다. 전사통지서는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과 판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폭력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죽음을 알려야 하는 자신의 직업에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판수는 전사통지서를 물에 띄워 보낸다. 전쟁의 실절적인 참혹한 모습은 작품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편지를 매개체로 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마을에도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통하여 감내해야 하는 슬픔을 보여주고 있다.

“박춘식이가 누구교?”

“우리 큰손자 아닌교. 와? 춘식이가 어쨌는게?”

“군대에 나갔는교?”

“그렇구마.”

“흠.”

판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하더니 하는 수가 없는 듯,

“전사했구마.” 하고 뇌까렸다.

“전사? 전사가 뭤테?”

“죽었던 말입니더, 전쟁을 하다가……”

“뭐라? 죽었다고?”

영감은 두 눈을 번쩍 뜨며 냅다 소리를 질렀다.

“우리 춘식이가 죽어?”

난데없는 소리에 놀라 안에서 식구들이 우르르 뛰어 나온다.

“아니 거기 정말이까? 정말이까?”

영감은 판수의 손에서 그 종이를 빼앗다 시피 했다. 그리고 눈에서 멀리 갖다 비추어 본다.

온 얼굴이 주름살이 쪼글쪼글 떴다.

“음……”

영감은 그만 땅이 꺼질 듯한 신음 소리를 했다. 그러자 달려 나온 노파와 젊은 아낙네가 왈각 목을 놓는다.

“아이고 우야꼬, 이 일을 우야꼬”³⁹⁾

삼십여 년 동안 우체부 생활을 하면서 편지 한 장 무책임하게 버린 적이 없었던 판수는 편지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이 물에 떨어져 날썬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계기로 아홉 장의 전사통지서를 모두 강물에 띄워 보낸다.

이렇게 아홉 장을 모조리 물에 띄워 버렸다. 물살을 타고 아홉 장의 군청 병사계가 일열 종대로 동실동실 떠내려간다. 참 희한하다.

판수는 그만

“ 왓 핫핫핫……”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통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십 여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런 통쾌한 맛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판수였다. 그래서 그는 입을 짹짹 벌리면서 속이 후련하도록 웃어젖혔다. ⁴⁰⁾

전사통지서를 모두 물에 띄워 보내는 행위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에 속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죽음의 불러오는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시의 힘없는 민중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순수성의 파괴

39) 강신혜, 하근찬, “홍소”,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379-380.

40) 앞의 책, p.387.

하근찬은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박하고 순수한 세계를 그린 작품을 많이 썼다. 이러한 순수의 세계에는 어린이가 등장한다. 전쟁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심하게 침해하고 동화적 상상력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동심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파괴하였다.

『붉은 언덕』은 전쟁의 피해담과 폭력적인 현실을 아이들의 눈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난 언덕에서 동심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세계와 그런 아이들의 감성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어른들을 통해 붉은 언덕의 이중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붉은 언덕이란 진달래가 붉게 지천으로 피어나서 입이 가무잡잡해지도록 진달래를 따 먹으며 유년기의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언덕이면서 6·25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무수히 묻혀있는 해골무덤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붉은 언덕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의미는 결국 윤길이와 인수의 생명을 앗아간 또 다른 죽음의 언덕으로 확대되어 전후 현실이 어떻게 유년기의 순수한 동심을 짓밟고 유린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붉은 언덕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햇빛을 받아 진달래는 더욱 선명한 빛깔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바람결은 좀 쌀쌀한 편이었다. 윤길이는 우선 진달래꽃을 한 움큼 뜯어서 입에 틀어넣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 꽃 덩불을 헤치며 비탈을 가로질러 나간다. 인수도 꽃 잎사귀를 하나씩 따 씹으며 뒤를 따른다.⁴¹⁾

전쟁이 끝난 60년대 어느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아이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전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윤길이와 인수는 진달래가 많이 피는 땅에는 금이 묻혀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고 진달래가 핀 언덕으로 가게 된다. 가난한 현실은 아이들에게 조차 물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유선생은 손을 들어 멀리 창밖을 가리킨다.

“저어 진달래꽃이 핀 언덕에는 틀림없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묻혀 있을 것이다. 아

41) 앞의 책, p.485.

름다운 진달래꽃이 저렇게 많이 피는 걸 보니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묻혀 있어도 아주 바윗덩이보다도 큰 것이 묻혀 있을 것이다.”⁴²⁾

윤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윤길이와 인수는 금을 팔아 연필과 공책, 운동화를 사고 싶은 마음에 그 땅을 파다 주먹만한 수류탄을 발견, 호기심을 가지고 만지다 그만 터트리게 된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난데없이, 팡!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땅바닥이 들썩했던 것이다. (중략)

연이는 그만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두 눈을 무섭도록 번쩍 뜨고 입을 다 벌렸다. 잠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던 연이는 그만,

“악 - !”

새파랗게 질려 소리를 쳤다.

윤길이와 인수는 간 곳이 없고 사람의 대가리와 몸뚱이와 팔다리가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달래 꽃빛보다 훨씬 더 붉은 빛깔에 젖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무신도 멀리 날아가 있고 팽이와 삽도 부러져 흩어져 있었다.

“으악”

연이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⁴³⁾

국군과 인민군이 싸운 시체의 더미위에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풍성하게 피어난다. 이 동산에서 꽃을 꺾는 연이와 호랑나비는 아이들이 보물이라고 파들고 있는 해골과 화해할 수 없는 단절을 이루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은 근대적 합리성의 산물인 수류탄의 폭발과 대립함으로써 전쟁이라는 괴물이나 이질적인 것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아이들의 순수한 꿈은 철저히 짓밟혀 버렸다. 그러나 좌절된 꿈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진한 어린이들 죽음을 통해서 전쟁이 남기는 참혹한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달래가 연상시키는 붉은색 피의 이미지와 무덤을 상징하는 ‘붉은 언덕’이라는 제목 그리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작가는 전쟁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42) 앞의 책, p.483.

43) 앞의 책, pp.494-495.

이런 참사를 목격한 연이는 이후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눈동자도 빛을 잃었으며 항상 얼굴에 그늘을 짓게 된다.

“나는 그 문제를 중요하게 압니다. 그 학생은 문제 아동이겠습니다. 그 학생 발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서 교정을 해 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입니다.”

유선생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에 웃음을 띠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킨 듯이 움직여 웃음이 되어 주질 않고 자꾸 이지러지기만 했다.⁴⁴⁾

외국 교육사절단이 학교를 방문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란 주제의 공개수업이 있던 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의 화초 표본인 붉은 언덕을 가리키자 연이는 아이들이 붉은 언덕을 보기 위해 일어나 시선을 창으로 돌리는 순간 발작을 일으킨다. 아름다운 추억의 동산인 붉은 언덕은 연이에게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해골을 묻은 무덤이 되고 친구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아간 또 다른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발작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지만, 수업 연구에 참관했던 브라운 씨는 연구협의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연이를 문제 아동으로 지목하여 발작의 원인을 알아 교정해 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유선생에게 충고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인 유선생과 마을사람들이 미국인들에게 해결책을 들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은 허상이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있다.

친구의 죽음으로 순수한 동심이 파괴되고 다가온 현실을 거부하는 어린 연이의 발작을 통하여 어른들의 폭력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아이들의 감성을 참혹하게 유린하지만 어른들은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고 임기응변식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동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른들에 대한 비판과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산울림』은 동심을 파괴하는 전쟁의 잔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표현 되어있는

44) 앞의 책, p.500.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친숙한 동질적 삶에 화해할 수 없는 낯선 외부를 대립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전쟁이라는 괴물이나 이질적인 것의 정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즉 수난의 역사적 근거가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인식된 것이다.

<산울림>에서 이념과는 무관하게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념문제 때문에 적이 되어 버린 남과 북 양편에 의해 수난을 당한다. ‘주민들이 처음들은 총소리’와 ‘윤이의 새하얀 운동화’처럼 때가 묻지 않은 순수의 세계와의 대립으로 총,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것들이 침범하여 순박함의 세계를 파괴한다. 이런 수난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과 짐승들에게까지 미치는 현실을 통해 전쟁이 가져다주는 폭력적 현실을 부각시키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은 산자락에 안긴 듯이 호젓하게 자리 잡은 집이라고 겨우 열 가호 남짓밖에 되지 않은 고요한 아름다운 산촌이다. 그런데 이 마을의 평화는 전쟁으로 인해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이 작품은 주요 등장인물인 종덕이, 용갑이, 윤이 세 어린이가 천진무구한 동화의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다. “동심의 세계가 대부분 어린이들 자신의 시선에 의하여 단순화 되고 소재화 되고 있는 것이다.”⁴⁵⁾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작중현실에서 차지하는 세 마리의 개 - 용갑이네 개인 검둥이와 종덕이네 누렁이 그리고 윤이네의 복실이-들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실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누렁이와 검둥이의 싸움에서 누렁이가 이기자, 검둥이는 귀 언저리에 검은 피를 흘리며 비실비실 뒷걸음을 친다. 싸움에서 이긴 누렁이가 복실을 차지하자, 용갑이는 자신의 개 검둥이가 복실을 빼앗긴 것을 분해하며 누렁이와 복실에게 돌맹이를 던지고, 종덕이만 보면 심술궂게 덤비게 된다. 소년들의 갈등은 세 마리 개들의 라이벌 관계가 주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현실 안에서는 개들은 세 어린이들과 동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닥쳐오는 개의 수난은 민족 수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한 낮의 고요한 평화는 두 사람의 군인이 쏘는 총소리에 깨어진다. 한낮에 국군 패잔병이 겁에 질려 짚어대는 검둥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누렁이 다리를 절게 하는 불구로 만든다. 이들을 안내하는 손 노인이 “가는 길에 아무쪼록 살생은 삼

45) 천이두, “동화와 그 살육”, 『한국현대문학전집』13, 신구문화사, 1967, p.493

가도록 하게. 비록 하찮은 개라도 함부로 죽여서야 어대 쓰겠는가?” 라고 타이르는 말도 비웃어 버린다. 즉 윤이와 종덕이는 이제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윤이는 손 노인이 뒤를 따라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 질겁을 했다. 눈에는 핏발이 서서 온통 벌겍게 물든 것 같고 몇날 며칠 손질을 안 했는지 수염이 돼지털처럼 지저분한가 하면, 흙인지 먼지인지 온통 때가 늘어붙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결코 교과서의 그림에서 보던 그런 국군아저씨는 아니었던 것이다. 46)

윤이와 종덕이는 교과서에서 보던 국군 아저씨가 아닌 난폭하고 잔인한 군인을 보게 된 것이다. 가을이 되자 다시 세상이 뒤집혔다는 소문이 돌리고 복실이가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종덕이는 윤이 집에 살다시피 하며 강아지가 젖을 떼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달이 좋은 어느 날 밤 따발총을 맨 인민군이 들이닥쳐 복실이와 어린 새끼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달이 좋은 밤 윤이네 집에서 옛날이야기를 듣던 종덕이와 윤이는 깃어대던 개소리와 온 천지가 발각 뒤집히는 것 같은 총소리를 듣고 마루 밑에서 참으로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벼락이 마루 밑에 떨어진 듯 온통 축대밭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복실이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마구 빠져 나왔고, 혀를 문 이빠디가 스며드는 달빛을 받아 무섭도록 허영게 번뜩거렸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밟아 문질러 놓은 것처럼 죄다 으깨져서 텅 굴고 있었다. 어미와 새끼가 온통 시꺼먼 피에 휘감겨 있는 것이었다. 뜰 방에 놓인 하얀 운동화에도 피가 시꺼멓게 젖어 있었다. 47)

이런 끔찍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들이 서리고 마을을 흔들어 놓고 지나간 총소리가 되살아나는 듯 모두 우울한 표정들이 된다.

복실이를 사이에 둔 누렁이와 검둥이의 관계로 인하여 야기된 종덕이, 윤이와 용갑이의 아이들 사이의 작은 갈등적 상황이 검둥이의 죽음으로 인해 어른들의 세계로 확대되자, 종덕이와 윤이, 용갑이는 전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적대적 현실로 고통을 받는다.

46) 하근찬, “산울림”,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467.

47) 앞의 책, p.474.

따지고 보면 이번 난리에서 이 마을은 개 몇 마리를 잃은 것뿐이다.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동화가 메마른 성인의 앙상한 타산이다. 허공을 향하여 애절하게 짚어대는 누렁이에 있어서 그 상실은 의미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종덕이나 용갑이나 윤이 같은 동화의 중심인물들은 그렇다. 그들에게 이 상실은 애인의 상실이요, 벗의 상실이요, 가족의 상실이다. “전쟁은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를 앗아간 것이다.”⁴⁸⁾ 이처럼 전쟁은 순수의 세계를 철저히 무시한다. 어린아이들에게 전쟁이라는 현실의 소용돌이는 먼 산울림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너무도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준 것이다.

3) 가치관의 혼란

앞에서 살펴본 죽음이나 불구 같은 육체적인 상흔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정신적인 상흔은 전후 사회의 또 다른 비극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소설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이 들어있다. 특히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은 전쟁이 가져온 도덕적인 오염으로 제시된다.

하근찬 문학에서는 전쟁에 대한 비판이나 아픔이 죽음이나 불구에 의해 주로 드러나며 외국인을 통해 제시되는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작품 중에서 반외세 의식을 드러내면서 우리 정신(전통) 파괴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왕릉과 주둔군』을 지목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죽음과 불구가 전쟁이 가져온 육체적인 상흔이라면 그 반대의 정신적인 상흔”⁴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왕릉과 주둔군』의 ‘박첨지’를 들 수 있다. 왕릉은 수구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설정되고 주둔군은 방종한 외래문화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상반된 두 개의 가치 인식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

48) 천이두, “동화와 그 살육”, 『한국현대문학전집』 13, 신구문화사, 1967, p.493.

49) 조남현, “상흔 속의 끈질긴 생명력”, 『산울림』, 한겨레, 1988.

조남현은 이 글에서 ‘왕릉과 주둔군’을 학살이나 육체적 훼손을 주로 나타낸 “수난시대” 계열의 작품들과 분리하여, 전쟁에서 서양 문화가 유입된 것이 정신적 상흔임을 지적했다.

하나는 박첨지로 비롯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이며 다른 하나는 서양병정으로 대표되는 서양적이고 외래적인 가치관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두 가치관의 극단적 대립보다 어느 하나에 의해 한 쪽이 무너져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근찬의 이러한 시선은 “훼손된 것에 대한 성격의 탐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막연한 향수에 있다.”라고도 한다.⁵⁰⁾

전쟁이 몰고 온 충격과 혼란을 풍속의 변화 또는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문제로 끌어올려 양반의 혈통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아버지 ‘박첨지’와 시대 변화에 휩쓸려 타락해 버린 딸 ‘금례’의 삶을 대비시킴으로써 미군 주둔이라는 전후 현실이 기존의 가치를 교란시키고 얼마나 전통과 혈통을 짓밟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전통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과거에 대한 향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등으로 해석되어진다.

박첨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왕릉을 지키는 노인이다. 그는 하루에 두 번씩 왕릉을 관리한다. 왕가의 후손인 박첨지에게 그 왕릉은 자기 조상의 자람이며, 박씨가 일등이라는 자부심으로 왕릉을 돌보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집은 지저분해도 상관 없지만 왕릉이 어지럽혀지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는 박첨지에게 전쟁은 큰 시련으로 다가온다. 박첨지에게 있어 왕릉은 살아 있는 조상의 실체이며 전통 그 자체이다. 그런데 서양 병정들이 왕릉 옆에 주둔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무덤이 하나 있다. 어찌나 큰 무덤인지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입을 딱 벌렸다. 꼭 조그마한 산봉우리 같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잔디가 이 거창한 흙무덤을 곱게 덮고 있다.

박씨의 선조 되는 어떤 임금이 묻혀있다 한다.

서양병정들이었다. 서양 병정들이 대여섯 사람 능 앞에 마련되어 있는 돌 제단에다가 무엇인가를 푸지게 풀어헤쳐 놓고 떠들어 대며 먹고 있는 것이었다. 제단에 궁둥이를 반쯤 걸치고 앉아서 원숭이처럼 무엇을 까서는 곧장 입으로 가져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⁵¹⁾

50) 정희모, “1950년대 한국문학과 서사성”, 깊은 샘, 1998, p.371.

51) 강신혜, 하근찬, “왕릉과 주둔군”,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p427

고운 잔디로 덮인 왕릉의 위용과 그 곳에 음식을 차려 놓고 간식 시간을 즐기는 주둔군의 모습은 외래세력에 의해서 이 마을이 변모하게 되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양병정은 박첨지가 숭상하는 보수적인 가치에 완전히 어긋나는 무례함과 해괴함으로 마을의 풍기문란을 조장하고 있다. 껌이나 초콜렛 같은 간식거리를 구하기 위해 서양병정을 쫓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박첨지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왕릉의 숲은 정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양색시들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서양병정들의 모습이 박첨지에게는 인간 이하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박첨지는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었다. 능 위였다. 분명히 왕릉의 두두룩한 봉우리 위에서 그 소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박첨지는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것 같았다. 바로 그 때였다. 검은 구름 속에서 달이 불쑥 비어져 나왔다.

(중략)

“빨리 못 내려올 끼가구마!”

담뱃대를 옆구리에 쿡 찌르고 작대기를 두 손으로 붙끈 들어쥐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능위를 무섭게 쏘아 보는 것이었다. 자지러져 가던 두 그림자도 놀랐는지 후다닥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 일어나더니 계집은 얼른 저쪽 너머로 사라졌고 사내 녀석은 아랫도리를 끌어올리며

“까뻐! 싸나가뻬치!”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⁵²⁾

오랜 세월 고이 보존해 온 자기 조상의 왕릉이 주둔군에 의하여 망가져 가는 것을 박첨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신성한 왕릉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첨지는 왕릉 수호 의지를 더욱 다잡는다. 왕릉 들레에 울을 치기로 한 것이다. 외국 군대의 난잡한 침입을 막기 위함이다. 늙은 박첨지로서는 힘에 겨운 일이요, 혼자서 감당해야할 괴로운 일이지만 그는 일에 보람과 자손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왕릉을 돌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박첨지의 모습은 현재적인 삶에 충실한 인물이기 보다는 과거의 조명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사는 존재라는 점이 확실해진다.

52) 앞의 책, p.434.

전통을 고집하고 반 외세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외래세력에 대한 거부 의식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그런데 그 어렵고 괴로운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 반질반질하던 수 좋은 머리는 어디로 가고 꼭 새집 쭉셔 놓은 것 같은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다. 치마는 무릎이 곧 내다보일 것만 같은 짧은 것이었고 굽 높은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꼭 몇 해 전 그 낮도깨비들 같은 얼굴 화장…….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란 말인가? 박첨지는 금례가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파란 운동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눈썹이 노란 빛깔이 아닌가. 운동모자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머리칼도 노릿노릿했다. 박첨지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자 금례는,

“철아, 외할아버지시다. 인사드려.⁵³⁾”

외국 군인과 놀아난 딸 금례가 어느 날 옷 보따리를 싸들고 자취를 감추어버렸는데 얼마 후 ‘노란 머리에 노란 눈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마을에 돌아온 것이다.

“외할아버지!”

아이 녀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눈앞에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박첨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왕릉에서였다. 왕릉의 두드룩한 어깨 째에서 애 녀석이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기어오르다가 박첨지를 내려다보며 노란 눈으로 생글 웃는 것이었다. 박첨지는 온 몸의 피가 왈각 얼굴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저누무 호로 새끼 이리 안 내려올 끼가! 양?”

박첨지는 꼭 실성한 사람 같았다. 지계를 받칠 생각도 않고 마구 앞으로 내달으려는 것이었다.

(중략)

징 - 징징징징 - 가물가물 떨어져 사는 박첨지의 귀엔 먼 마을에서 흘러오는 풍물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고 있었다. ⁵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박첨지의 행동을 통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왕릉과 주둔군』은 전쟁이 인간유대의 기본 단위인 가족

53) 앞의 책, p.445.

54) 앞의 책, pp.448-449.

을 파괴시키고 서로 혐오스러운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례가 순결을 버리는 것은 “전쟁의 비윤리적이고 파손적임을 드러내주는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이질적인 피의 섞임에 의해서 민족적인 순수성이 결손 됨을 암시하는 의의⁵⁵⁾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분단된 조국에서 순수성과 전통성을 고수하려는 아버지와 조상의 무덤에서 정사를 벌이고 오줌을 아무 곳이나 마구 갈기는 미군, 그리고 마침내 노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딸은 아버지의 삶과 정체성을 유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무덤을 고이 지켜 가려는 박첨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적 전통을 지켜 나가려는 주체 의식의 한 상징적 실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란 머리에 노란 눈’으로 상징되는 서양 병정에게 박첨지는 정신적 지주와 함께 삶의 의미마저 빼앗겨 버린다.

서양의 근대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체적인 민족의식이 토착적인 세계에서 서양병정으로 대표되는 외래적인 것과 갈등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전후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혼란스러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둔군은 수천 년을 지켜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의미하는 왕릉을 모독하고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정신적인 상흔을 남기는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4) 여인들의 한

전쟁은 남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죽음과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을 파괴한다. 전쟁으로 인한 생활난과 외국군의 주둔은 여성으로 하여금 몸을 팔아서라도 생존을 유지하게끔 강요하였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은 가족을 해체하고 생존을 위협하며 여성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이재선은 “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훼손된 여인들의 삶의 현장들은 전쟁문학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현실사회의 문학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⁵⁶⁾라고 하였다.

55) 이재선, 「전쟁의 체험과 1950년대 소설」, 1989, p.339.

5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이러한 대표적인 여인으로 『분(糞)』의 덕이네와 『야호』의 갑례를 들 수 있다.

『분(糞)』은 해방 후 6·25전쟁으로 인해 징병을 나가게 되는 아들의 징집을 면제받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이는 덕이네를 통해 모성애와 전쟁의 비정함을 드러낸 작품이다.

덕이네는 열일곱에 처음 시집와서 덕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돌림병으로 죽어 과부가 되었다. 두 번째 남편도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 나가서 소식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리며 아들 호덕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을 두 번이나 잃은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들에게 나온 징집영장을 보고 전쟁은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뺏어 가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기가 막혔다. 그녀의 소망은 아들 호덕이와 함께 지내는 너무도 소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녀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에게 다가온 첫 번째 수난은 열일곱에 과부가 된 것이다. 그 후 두 번째 남편이 떠난 것은 북해도 탄광에 징용되었기 때문이다. 정재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어 2대째 6·25 전쟁에 징병이 되어 가는 것에서 우리는 『수난시대』에서 보여준 대로 대를 이은 수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⁵⁷⁾고 하여 두 번째 남편과의 결별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운명과 덕이네의 운명은 함께 진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장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자, 덕이네는 나한테 다 무슨 고지서가 나올까 싶어 종잇조각을 들여다보았다. 보아야 알 까닭이 없었다. 그저 검은 것은 글자 정도였다. 그러나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붉은 선이었다. 두 줄기의 붉은 선이 선명하게 대각선을 긋고 있었다.

“빨간 줄이 두개 쳐졌네예. 이기 뭘니꼬?”

화산택이 바라다 보았다.

“아이 이 사람아 야단났네, 야단났어.”

“와예?”

“그기 뭘지 아는가?”

“뭘니꼬?”

“호덕이 데려가는 영장 아니가. 영장.”

57) 정재은, “하근찬 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논문, 1999.

“영장?”

“그래, 군대 나가는 영장 말이다.”

“아이구 우짜노.”

덕이네는 가슴에서 무엇이 푹 떨어지는 것 같았다. 두 눈을 대고 깜짝거렸다.

(중략)

“이 일을 우짜는교? 예? 형님요, 예?”

덕이는 화산택이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영장을 쥔 손이 자꾸 떨리었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58)

모질게 살아온 그녀 앞에 떨어진 징집영장은 곧 그녀에게 있어 호덕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절망감을 준다. 결국 그녀의 수난은 개인의 삶이 역사에 의해 굴절되고 있는 것에서 오고 있다. 덕이네는 아들 호덕이를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정조를 포기한 채 속물스러운 면장에게 자신의 몸을 내맡긴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다. 자신이 여태껏 모아 놓은 돈으로 면장을 구슬려도 보지만 면장에게 무시당한 채 아들 호덕이는 결국 징집 당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가혹한 형태로 겪어야 하는 덕이네의 삶을 통하여 수난의 의미와 무지하고 순진한 여인들의 한 많은 삶을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야호』에서 갑례는 한국의 전형적인 여자의 일생이라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한 여인에게 덮치는 수난은 근대사의 상처, 그 자체로 보여 진다. 경북의 한적한 산간마을인 ‘홍식골’을 배경으로 농촌의 토속적인 삶과 전쟁의 상처라는 시대적 비극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모든 고통화복을 함께 하는 인정주의로 뭉쳐 있고 미신과 운명론에 기운 전형적인 향촌 마을의 전래적 삶을 그리면서도 대동아 전쟁과 6.25 전쟁으로 표상되는 시대적 참극이 마을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서 요동친다. 그래서 “『야호』는 토속세계를 서정적인 심미감 속에 그려낸 김유정, 이효석 등의 30년대 문학과도 다르고, 전쟁의 참상 자체를 그려낸 황순원, 박학송 등의 50년대 문학과도 구별된다.” 59)고 하였다.

58) 강신제·하근찬, “분(糞)”,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394.

주인공 갑례가 겪는 수난 또한 두 차례의 전쟁 -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주인공 갑례는 한마을에 사는 영철이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정신대에 끌려가다가 도망 나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주선대로 이웃마을 태석에게 시집가게 된다. 태석이와 결혼한 뒤 영철이를 단념하고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갑례는 다시 남편 태석을 징용으로 빼앗기는 불운을 겪는다. 징용 간 남편은 10여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 갑례는 태석을 기다리기를 단념하고 영철이의 열정적인 구애를 받아들여 살림을 차린다. 그런데 태석이는 온갖 고생 끝에 살아 돌아와 영철이와 살고 있는 갑례를 찾아간다. 영철이는 다시 국군에 입대하게 되고 태석이가 돌아와 다시 같이 살기를 요구하지만, 둘 중 한 남자를 선택해야 하는 갑례는 후에 전장에서 죽게 될 영철이와 살기를 결심하면서 그녀는 끝내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다. 태석이 같이 살 것을 요구할 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도식적이고 관습적인 정조 관념이 아니라 바로 도덕적 측면이었다. 그녀에게 일부중사란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몸을 바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부중사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외부세계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다. 전쟁에 지친 갑례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없었다. 전쟁은 그녀의 삶의 방식까지 파괴해 버린 것이다. 연속되는 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리는 부당한 삶에 대한 그녀의 항의는 한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전쟁에 대한 말 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난다. 자신이 처지가 팔자 탓이 아니라 이 나라를 휘돌아 나가는 ‘바로 전쟁이라는 놈의 장난’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전쟁이란 부수고 죽이고 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허물어뜨려버리는 것이로구나 싶기도 했다. 6·25가 나지 않았더라면 결국 태석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는 남편의 생사도 알 길이 없이, 영영 생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자기 신세보다 나을게 아닌가. (중략)

그놈의 대동아 전쟁만 아니었더라면, 영철이도 징용에 끌려 나갈 턱이 없고 결국 처음부터 영철이에게 시집을 가서, 흥식골에서 세상의 풍파를 모르고 살았을 것인데…… 설혹 영철이와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디 적당한 곳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을 것인데……⁶⁰⁾

59) 강현구, “하근찬의 야호에 나타난 정한과 성”,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0, p.90.

60) 하근찬, “야호”,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중앙일보사, 1997, p.425.

태식이의 기구한 삶(갑례와 혼인 → 징병→일본관동군→해방으로 귀향→소련군 포로→시베리아 강제수용소→북으로 송환→인민군→거제 포로수용소→귀향→재혼)이나 영철이의 불행한 삶(일제 지원병→해방으로 귀향→인민군 징병→탈출→갑례와 부산 생활→국방군 징집→부상으로 입원→전사)은 상처뿐인 한국 근대사의 질곡에 휘말린 역사의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삶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겪는 전쟁과 식민지하의 체험은 갑례의 삶과 이어져 있으므로 그녀의 삶은 우리 근대사의 상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세 인물의 비극적인 만남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강압적인 존재조건(징병, 징용, 정신대 징집)은 역사의 횡포를 드러내고 있으며 갑례에게 있어서는 한과 수난을 안겨주는 요소들이다.

그녀는 참혹한 수난에 대하여 이제까지 보여주던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며 운명적인 자세에서 벗어났으며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을 증오한다. 그녀가 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운명의 여건에 대한 분노는 이제 이미 그녀가 한으로 침잠할 수 없는 내적 결단을 의미한다. 61)

그녀는 한으로 다가왔던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분노를 품게 되자 자살을 결심한다. 그만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하근찬의 문학에서는 두 차례의 전쟁으로 여성이 수난 당하면서 품어야 하는 한을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있다.

2. 수난의 극복

전쟁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때 남겨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수난을 겪고 난 후에 남겨지는 것은 단순히 외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까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런 상처들은 생존기반의 붕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유지할 수 없고 이전까지 지켜오던 윤리나 가치가 무너져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삶은 자

61) 김병익, “한의 세계와 비극의 발견”, 「산울림」, 한겨레, 1988, p.384.

연적인 삶의 리듬과 합하여 그것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떻게든 살아감으로써 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현실 저항

하근찬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힘없는 농민이거나 소시민들이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전쟁에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술을 마시며 푸념 하거나 방뇨, 방분의 방법 등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미련한 방법으로 저항한다. 유종호는 “문학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암시적인 저항”⁶²⁾이라고 하였고 전영태는 “소극적인 저항성”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저항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예상하거나 전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힘없는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저항은 그들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앞으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다.

『나룻배 이야기』에서 징병 나갔던 두칠은 참혹하게 변해서 돌아오고 천달이의 전사 통지서를 받는다. 삼바우는 자신이 배를 태워 건너게 해 주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어느 날 입영통지서를 전하러 오는 병사와 양복쟁이가 강 언덕에 나타나자 삼바우는 그들을 태우지 않으려고 후들거리는 몸으로 배를 숨기려 강 건너로 저어간다.

얼른 닢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베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는다. ⁶³⁾

62) 유종호, “농촌사람의 눈으로”, 『산울림』, 한겨레, 1988, p.372.

유종호는 이 글에서 “나룻배 이야기” 삼바우나 “분”에서 덕이네의 행위를 저항 문학의 실례로 보았고 유머러스한 문학적 저항이라 보았다.

63) 강신재, 하근찬 “나룻배이야기”,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354.

배에 그들을 태우는 것을 거부한 삼바우는 통쾌함을 느낀다. 『나룻배 이야기』에는 많은 전쟁 피해자가 등장한다. 전쟁의 피해자들은 배를 통해 오고가기 때문에 뱃사공 삼바우에게 나루터는 출정한 장정들이 유골이 되어 돌아오거나 불구자로 돌아오는 교두보로 인식된다.

나루터에 나와 서 있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한숨에 젖어 있었다.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간다 말이다. ……

갑분이의 탐스러운 얼굴에도 그들이 서리었고 두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거기 섞여 있었다.⁶⁴⁾

따라서 삼바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숨과 그늘을 주는 외부 세상과 마을을 격리시키고자 배를 마을 쪽으로 되돌리게 된다. “이런 삼바우의 행위는 실효성이 없고 부질없어 보이는 저항적 행동이지만 유우머 속에 표출된 가장 사무치는 저항의 자세”⁶⁵⁾라고 보고 있다. 이런 행위는 뱃사공 삼바우가 징집이라는 폭력적인 현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저항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홍소』에서 평생 동안 우체부 노릇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조판수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전사통지서를 나르게 되면서 마치 자신이 죽음의 원인이라도 되는 양 죄책감에 시달린다. 판수가 전달한 편지는 아들 손자들의 전사소식이 담긴 것들이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오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조판수에게 괴로운 것이었다. 판수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의 오열을 바라보면서 난감해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판수의 아들도 전장에 나가 있었기에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려는 듯 대낮인데도 술을 마신 조판수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물에 떠내려가는 편지들을 보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실수로 떠내려 보내야 했던 편지를 보면서 조판수는 일부러 물에 편지를 띄워 보내면 어떻겠는가 하는 궁리를 하기에 이른다.

64) 앞의 책, p.351.

65) 유종호, “농촌 사람의 눈으로”, 『산울림』, 한겨레, 1988, p.372.

대낮에 가까워지니 가을이라곤 하지만 별이 제법 두꺼웠다. 판수는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한쪽 손에 편지 봉치를 등 채 코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휘청휘청 걸었다. (중략)

판수는 그만 비틀하면서 한쪽 발이 돌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철버덩! 물에 빠지고 만 것이다. 차라리 시원하고 좋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손에 쥐 편지 봉치에서 편지 한 장이 물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66)

내를 건너던 조판수는 술기운 때문인지 물에 빠지고 만다,. 그런데 물에 빠진 다음의 조판수의 일탈이 결정적으로 사건의 원인이 된다.

판수는 그만 우뚝 서고 만다. 멈추어 서서 숨을 할딱거리며 그것을 멀뚱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군청 병사계라는 글자가 물에 젖어 유난스레 돌아 올라 보였다. (중략)

“옳지!”

한다. 그리고 무슨 재단한 걸김이라도 하는 듯 어금니를 짝 지르물며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혹 내뿜는다. 달콤한 술내가 물씬 쏟아져 나온다, 판수는 두 눈을 대고 꺾벽거리며 손에 든 편지 봉치를 한 장 한 장 뒤적이기 시작했다, 뒷 걸봉에 군청 병사계라고 쓰여 있는 놈이 나오자 그것을 꼭 잡아 뺏는다.

“에라잇!”

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뱉다 물위에 때기장을 쳐 버린다. 67)

결국 조판수는 편지 아홉 통을 개울에 띄워버리고 만다. 우연히 물에 빠짐으로써 우편물을 놓치게 된 판수는 아예 걱정하고 우편물을 팽개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한 해결의 대안인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떠내 보내기라고 함으로써 고단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각 되어 직장에서 근무태만, 배달 불능으로 파면 당한다.

이 작품에서 조판수가 웃는 두 번의 웃음이 묘사된다. 첫 번째 웃음은 전사통지서를 개울에 띄워버리고 나서 웃는 웃음으로 아주 통쾌한 웃음이다. 두 번째 웃음은 이 사건이 발각되어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웃는 서글픈 웃음이다. 즉 대항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의 웃음이요 초

66) 강신재, 하근찬 “홍소”,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 385

67) 앞의 책, pp.385-386.

월의 웃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이들에게 대항의 의미도 저항의 의미도 가질 수 없는 대상이고 그들은 저항할 가능성이나 능력도 없는 것이다. 힘없는 민중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다만 인내해야만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에서 덕이네는 면장에게 아들 호덕이를 징병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호덕이는 징집되어 나간다. 덕이네는 호덕이가 징병되어 나가는 것도 서럽지만 자신을 속인 면장에게 더 분노를 느끼고 면장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

면장실 앞에 이르자 덕이네는 이를 지그시 물어 흘렁 치마를 걷어붙였다. 치마를 걷어붙인 채 현관으로 올라섰다. 현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서서 고쟁이를 내렸다. 그 안의 것도 내렸다. 그리고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다. 무르팍이 빠근했다. (중략)

“히히히……문둥이 자식, 내일 출근하다가 저걸 물경 밟아야 될건데……”

덕이네는 이제 반 분 짙은 풀리는 듯했다. 얼른얼른 걸음을 떼어 놓았다. 어지선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⁶⁸⁾

아들을 징병 보내고 그 한을 방분이나 방뇨를 통해서 푸는 행위는 징집 면장이라는 거대한 현실에서는 무모하고 미미한 것이고 어찌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적인 행동이다. 덕이네는 지적이고 세련되지도 못한 인물이다. 더구나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도 못되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약자로서 취할 수 있는 저항적 자세이며 수난의 사건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그 한을 카타르시스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에는 건강한 자연성이 있다. 마지막 부분 닭 우는 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또는 밝음을 상징하는 자연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자연의 이미지는 행위자의 행위를 감싸 안아주는 자연과 인간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⁶⁹⁾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비극적인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순응하면서 그 한을

68) 하근찬, “분”,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p. 419-420

69) 김진기, 조미숙, “민요적 세계관의 의미구조”, 『한국근대작가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p.342.

해소시키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우리민중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술’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난이대』에서 아들 진수의 장애를 알고 만도가 거들빼기로 석 잔을 마셔대는 모습이라든지 『홍소』에서 자신이 전해주는 편지가 전사통지서인 것을 알고 조판수가 술을 마시는 장면, 『흰 종이수염』에서 동일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고 흐느끼는 모습, 『야호』에서 갑례가 태석에게 시집가자 영철이가 폭음하는 모습, 징병 전야에 벌어지는 술잔치와 무작정 마시고 취해 버리는 젊은이들이 작품에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현실에서의 수난을 술을 통해서 해소시키면서 순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이러한 무기력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 극복 의지

하근찬은 무고하게 희생되는 민중들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6·25가 관념적이거나 가치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 받고 장애인이 되고 남편과 자식을 잃어야 했던 전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눈을 돌려 수난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의 의지를 확인하고 전쟁 후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 즉 상처받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화합을 통해서만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난이대』에서 일제 때 징용에 나가 팔을 잃은 아버지와 6·25로 다리 하나를 잃은 아들의 기이한 동행이야말로 우리역사의 수난사를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

“와?”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살아.”(중략)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 멩기매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⁷⁰⁾

다리를 잃은 아들이 삶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자 아버지는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라고 달랜다. 박만도는 자신과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어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인물로 서로가 전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자고 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을 가로막는 역사와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통해 생존 본능을 확인하며 뛰어넘으려 함으로써 패배감을 극복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인 수난을 극복하는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박만도와 진수는 일제와 6·25전쟁의 피해자로서 역사적 사건으로 희생된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들 부자의 삶의 태도는 착한 한국인의 끈질긴 생명력의 표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짙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끄!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 갈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나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삼켰고 아버지의 등에 얹힌 진수는 곤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왔을 텐데……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⁷¹⁾

부자는 팔과 다리를 잃어버렸으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팔이 한쪽 없는 아버지가 한 쪽 다리가 없는 아들을 업고 다리를 무사히 건너는 결말은 절망을 던고 다시 일어서는 삶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의미하며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넘어서서 면면히 이어가는 끈질긴 민족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수난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부자의 삶을 통해 이 땅과 겨레의 암담한 운명의 극복을 희망하게 된다.”⁷²⁾고 볼 때 고난의 연대를 살

70) 하근찬, “수난시대”,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17.

71) 앞의 책, p.19.

아가는 삶이 지탱해야 하는 휴머니즘적인 화해의 측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독자들에게 불구인 상황을 협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성 회복을 전망해 보고 두 역사적 사건으로 초래된 고난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역사와의 갈등이 부자지간이라는 핏줄에 의한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억압하는 역사, 혹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운명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 작품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야호(夜壺)』는 요강이라는 뜻인데, 한 여인이 태평양 전쟁과 6·25의 두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이다. ‘갑례’는 자신이 치르고 있는 수난의 원인이 단순히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자신의 팔자가 더럽게 되었다’고 한탄을 한다.

그리고 보니 결국 자기는 두개의 전쟁 때문에 신세를 망쳐버린 셈이다. 자기가 이런 꼴이 된 것도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바로 전쟁이란 놈의 장난 때문인 것이다. 이런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니, 갑례는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⁷²⁾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서러움과 원통함에 젖어들어 한탄하게 된다. 갑례의 이런 한탄이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린 딸 남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살까지 결심했던 갑례는 다듬이질 소리에서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게 되고 타인을 위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변화를 보인다.

그때였다.
어디선지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뚱뚱뚱……
겨울옷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72) 하근찬, 「내 안에 내가 있다.」, 엔터, 1997, p.17.

73) 하근찬, “야호”,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10, 중앙일보사, 1997, p.425.

그 소리를 듣자, 갑례는 가슴이 짜릿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중략)

생각할수록 서럽고 원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서럽고 원통하면서도 그 다듬이 소리는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을 자아내기도 했다. 자기도 가을이 깊어지면 밤 이슬토록 신나게 다듬이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⁷⁴⁾

다듬이질 소리를 통해서 지나간 고통스런 세월이 저주스럽지만은 않은 곧, 슬프지만 자신의 것으로 껴안아야 할 세월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일종의 체념적인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갑례는 다듬이질 소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생애가 가혹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한국 여인들의 운명적인 삶 속에 자신의 생애를 편입시킬 수 있게 되며 그럼으로 말미암아 자살할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⁷⁵⁾

갑례는 어린 딸 남이와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집착했던 과거를 버리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선택한다. 다듬이질 소리를 통하여 자신에게 요강을 물려주던 어머니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야호>의 결말은 이렇듯 외부 세계를 견디어 내는 토속적 세계의 모습이며 이 데올로기와 토속적 정한의 대립을 통하여 삶을 보호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강하게 호소한다. 또한 그것은 “시대적 비극에 희생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라는 측면과 함께 유교적 윤리와 성적 갈망이라는 본능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러면서도 건강한 성적 본능에 따라 삶을 영위코자 했던 한 주체적 인간의 삶이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⁷⁶⁾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자신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동생 뿌뚜리에게 꽃 요강을 선물로 주려는 마음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의 표현이며 극복하고 싶은 삶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4) 앞의 책, p.434.

75) 홍정선, “요강 속에 담긴 운명”, 『야호』, 중앙일보사, 1987, P.471.

76) 김선동, “하근찬소설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30.

『산울림』의 결말도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루 밑에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개들 틈에는 암강아지 한 마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쭈그리고 앉으며, 마루 밑으로 한쪽 팔을 들이미는 것이었다. 손노인의 손에 쥐여 나온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강아지였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손노인의 손바닥 위에서 꿈지락꿈지락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까만 보석 같은 두 눈을 빼꼼히 뜨는 것이 아닌가.

“오매에.”

“살았네, 살았네.”⁷⁷⁾

전쟁은 토속적이고 순수한 세계를 파괴했으나 희망까지 없애버리지는 못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마리의 암컷 강아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생명력을 나타내고 전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에서 우리는 그래도 남아있는 삶의 섭리와 조화를 읽어낼 수 있다. 전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적 부자유를 빚어낸 불가항적인 위협이었다. 하근찬의 작품 전체에서 말하고 있듯 그것은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었다.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민중들의 힘은 삶의 의지를 다지고 일어서고자 한다. 하근찬은 이 작품을 통하여 전쟁을 형상화 하면서 전쟁에 굴하지 않는 끈질긴 삶의 의지와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77) 하근찬, 『산울림』, 『한국소설 문학대계』37, 동아출판사, 1995, p.475.

Ⅲ. 식민지 체험의 증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방 조약을 강제로 실시하여 조선의 식민지화를 국제적으로 합법화 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개화 계몽운동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국권의 박탈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려 했던 일제는 식민지 최고 통치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확립하여 폭압적인 무단 정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궁핍한 경제 상태를 유지시켜 제국주의적 약탈을 강화 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 전 국토의 약 50% 가량을 일제 총독부 소유로 약탈하였다. 이런 과정 중 조선농민은 일제와 친일파에 의해 막대한 토지를 약탈당하였으며 일본은 조선에서 많은 식량과 원료를 약탈해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이 식량과 원료 공급지로서 일본 자본주의의 완전한 부속물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바이다.

일제는 경제, 사회적인 식민지 수탈과 함께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한 ‘민족말살정책’을 계획하였다. 1910년 조선 교육령을 내려 일본어를 국어로 정하도록하고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과 사용을 금하는 한글 말살 정책을 폈다.

또한 조선 역사 교육을 축소시키고 고등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여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으며 매일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경례를 하고 일본왕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복창하면서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인간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가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던 시기로 우리나라로부터 징병, 징요, 정신대 등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 갔고 말 그대로 민족정신을 말살시켜 충실한 황국신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기에 하근찬은 유, 소년기를 보내면서 일제의 탄압을 직접 체험하였다.

하근찬은 스스로도 밝혔듯이 체험한 것만을 소설로 써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

던 작가이다. 그의 이런 고집스런 자세는 작품 소재의 폭을 넓히지 못해 소재주의적 한계를 갖게 한다⁷⁸⁾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세계를 ‘일작품주의’라 명명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근찬에게 있어 체험이 작품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구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쟁체험을 소재로 할 때와 일제 치하 소년시절의 체험을 소설화 할 때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60년대 후반까지 전쟁의 참혹했던 수난의 모습을 소재로 하던 작품경향에서 일제치하 소년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왕릉과 주둔군(63)』, 『산울림(64)』, 『붉은 언덕(64)』, 등의 작품이 발표되고 『야호(71)』가 발표되기까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주류를 이루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에서 서서히 일제치하 관련 작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작품경향이 6·25 전쟁으로부터 태평양 전쟁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회상의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천이두는 “첫째 6·25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경향이 소재나 이슈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며, 둘째는 역사의식의 발로, 셋째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문학 외적 압박이나 제약으로 인해 막히게 될 경우 문학으로 벗어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⁷⁹⁾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이 분단의 실마리가 되었고 그 분단이 동족상잔으로 이어졌으며 분단의 고착화라는 현실로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6·25와 식민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그가 식민지시대로 눈을 돌리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식민지 현실

일반적으로 제2기 소설로 불리는 일제체험을 다룬 소설들은 일제치하와 관련한 소재를 작품화 시킨 1970년대 초에서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에 발표한

78) 구중서에 따르면 이는 “유년시절 소재 소설은 냉정히 검토할 때 대체로 소재주의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체험 세계 자체를 소재로 하면 그 안에 비록 인간적 삶과 역사의 그들을 정교하게 조화시킨다 해도 힘찬 대작을 낳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작가에겐 실 체험의 확장 아니면 상상력의 활성화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79) 천이두, “추억과 역사”, 『세계의 문학』 7, 1978, 3, pp.245-246.

소설들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진행형의 식민지 현실과 청산논리가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폭력과 비인간성에 대한 경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 1기와는 달리 청년기에서 거슬러 올라간 유, 소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시기의 작품은 경험을 토대로 한 사실적인 면과 동시에 회상을 안고 다소 낭만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가지고 있다. 『일본도』와 『죽제비』의 경우 일제말기 죽제비 같은 일본 상인의 착취를 회상하며, 일본도나 채찍을 휘두르며 민중들을 공포로 몰고 가던 교장, 헌병, 순사의 모습을 그려낸다. 전쟁의 직접 체험보다는 후방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식민지 정책의 실체를 묘사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수난의 연속성에서 어린 시절에 체험한 일제치하에서 전쟁이라는 일관성 있는 소재를 발견해 낸 것이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관련된 작품들은 참혹함이나 비극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근찬이 일제에 대한 체험과 전쟁에 대한 체험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⁸⁰⁾

『조랑말』은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설움이 소박하게나마 해소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게 끈임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작가의 의견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열한 살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태평양 전쟁은 결코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대목도 없지가 않으나, 직접적인 괴로움을 그때부터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 생도들에게도 근로 동원이 실시되어 공부대신 곧잘 논으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의 어두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하기도 했다. 징용이니 정신대니 하는 인력동원과 공출이니 헌납이니 하는 물자 강제수탈에서 빚어진 가지가지 희비극이 그것이다.

해방이 되던 해 봄에 나는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일제치하의 그 마지막 서너 달 동안의 학교생활은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어서, 말하자면 나오서는 최초로 맛본 세상의 쓴맛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80) 김순동, “하근찬 연구”, 목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1, p.37.

그의 체험이 작품으로 형상화 되면서 소년시절의 체험을 여과 없이 그대로 어린이의 눈을 통하여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때문에 “일제 말기의 절망적이거나 피폐한 모습이 다소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필체로 나타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⁸²⁾ 거나 “상황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는 점은 작가의 한계”⁸³⁾라는 연구자의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일제 식민지 수탈에 대한 묵시적 비판과 그 상황이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나 극복되었는가와 광복이후 일본의 영향이 식민지 상황과 동일선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경제적 수탈

하근찬의 작품들 중 『죽제비』, 『야호』, 『산에 들에』와 같은 작품에서 일본이 35년 통치기간 동안 감행한 억압과 수탈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식량을 공출하고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유기 및 금불이 공출을 강요하며 정신대, 강제 징용, 학도병 등 사람까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군에서 공출 독려반이 나오면 면직원은 물론 면장, 구장, 반장까지 동원된다. 주재소의

81) 하근찬,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들”, 『한국문학』 138, 1985, p.4.

82) “그 옥된시절”, “죽창을 버리던 날”, “일본도”에서 일제치하의 힘든 학생시절의 모습이 그에 해당되며 “그해의 삽화”, “준동화”에서는 일본인 여선생에 대한 사모의 정이, “낙발”, “기울어지는 강”, “원 선생의 수업” 등에서 선생님에 대한 중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초기 작품이 후기로 갈수록 줄거리의 변형을 가져오며 김순동은 후기 작품일수록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83) 전영태, “담담한, 혹은 정결한 결벽성”, 『산울림』, 한겨레, 1988, p.398.

전영태는 하근찬의 이러한 성향에 대하여 내용의 한계가 아니라 작가의 한계라고 보았다.

“하근찬의 경우 그의 소설의 진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것도 그 스스로 작가의 계층적 한계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생애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서술한다면 하근찬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로 그 스스로 초등학교 교사와 잡지사 편집 기자를 거친 그런 사람으로서 체험하지 않은 것은 허구화하지 않으려는 작가 의식으로 소설을 써온 작가이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그의 정결한 결벽성에 연원한다. 하근찬의 작품은 허황된 것, 체험할 수 없었던 것, 쓸데없이 흥분하는 것, 잡다해서 다른 사람의 골치만 아프게 하는 것 등을 그 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다.

순사까지 나선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공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터인데 하시모도 농장의 직원까지 동원이 된다. 84)

『죽제비』는 마을에서 떨어진 농장에 사는 안개 같은 존재인 일인 하시모도와 그 집 뒤 숲속에 산다는 30년 묵은 죽제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궁금증으로 시작된다.

이 가난한 마을의 경제권을 지배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일본인 하시모토의 농장이다. 마을 사람들은 하시모도에 대해 반감 내지 경계심과 더불어 선망어린 호기심도 가지고 있다. 하시모토는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존재이다. 더불어 자꾸만 곡식과 가축이 사라지는 것은 어디에 거처하는지 모르는 죽제비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쏭달쏭한 존재였다. 말하자면 이 농장 주인인 하시모토는 안개에 싸인 것만 같은 존재였다.

또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죽제비였다. 저택 뒤에 있는 대나무 숲은 낮에도 그 속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었다. 그 대나무 숲속에 30년 묵은 죽제비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죽제비 역시 똑똑히 본 사람은 없었다. 85)

하시모토와 죽제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호기심의 대상이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 서술되는 것은 그들이 비밀스러운 존재이면서도 어떤 연관이 있다는 암시를 던져준다.

소설의 결말에 가면 죽제비가 바로 하시모토였음 마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30년 묵은 죽제비를 연상하게 되는 하시모토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조선을 수탈하며 호의호식하는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가난한 농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가난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학섭이 아버지 고생원이다.

고생원은 일제의 식량공출이 나오자 몰래 하시모도 농장 근처의 대나무 숲에 쌀

84) 강신제, 하근찬, “죽제비”, 『한국현대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539.

85) 앞의 책, p.530.

세 가마니를 숨기고 나오다 농장에 접근한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고 결국 일용 아버지 최서기의 고밭로 숨겨둔 쌀 세 가마니는 공출 독려반에 의해 뺏기고 고생원은 주체소로 끌려가게 된다. 고생원은 최서기의 아들 일용으로 인해 자신이 밀고 당해서 뺏기게 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하시모도 농장에 숨어있던 30년 묵은 족제비가 언덕을 파내어서 발각되었고 자신을 주체소까지 끌고 가게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농촌의 빈궁과 공출로 모든 것을 빼앗겨 굶주린 것을 걱정하면서 곡식을 몰래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일제치하에서 무리한 식량 공출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달픈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호』는 활동사진을 상영한다는 소식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산골 마을의 젊은이들이 학교에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반도지원병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는다는 활동사진을 보여주고 태평양전쟁을 위해 강제징용, 유기공출, 여자공출까지 나온다.

“놋그릇 공출이 다 먹고, 저거가 우리 놋그릇 살 때 한 푼 보태주거나 했나, 애국심에서 자진 헌납한다고? 자진 헌납이 와 배당대서 나오노. 도대체 머 말라비틀어진 기고, 앞으로 또 무슨 공출이 안 나올 줄 아나, 두고 보래 음……음…….”⁸⁶⁾

젊은이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며 불안한 웃음을 짓고 화를 내보지만 결국은 징용이나 정신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병사들의 방석을 만들러 가는 줄 알고 떠난 처녀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정신대 신세가 된다.

전체가 4장으로 된 움니버스 형식의 『산에 들에』는 일제 말기의 증상이 절정에 달했던 1944년 가을부터 이듬해 여름 광복 될 때까지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장은 정신대에 대한 이야기 2장 금불이의 수탈 등은 『야호』와 비슷한 일제말기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 누가 카는데 곧 말이다, 처녀공출이 나온다는 기라.”

86) 하근찬, “야호”,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10, 중앙일보사, 1984, p.32.

“치녀 공출요?”

“그래.”

“허허허……무신 그런 공출이 다 있단 말이고, 누가 카딩교?”

(중략)

“뭐라 카더라……무신 파이라 카던데……대시대시……대시파이라카던가……좌우간 그런 기 새로 생겨서 치녀들을 죄다 굶어간다는 기라. 말하자면 치녀 징용인 셈이지⁸⁷⁾

제1장의 중심인물은 황달수의 딸 봉례와 그의 애인 두만이다. 봉례는 국민학교 동창인 두만이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은 남남이 아닌 사이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신파이(정신대)라는 치녀공출이 있게 되리라는 소문이 나돌자 봉례 아버지는 그녀를 서둘러 출가시키려 한다. 봉례는 정신대 차출을 미리 알고 대처하였으나, 미리 대처하지 못한 순금이는 결국 정신대로 끌려가고 만다. 그러나 가난한 금융조합 소사인 두만이는 봉례와 당장 결혼할 처지가 못 되었다. 봉례는 결혼식 당일 아침 가출하여 고모집으로 도망쳐 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티지만 결국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만이와 결혼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한 정춘식과 결혼하게 된다. 자포자기한 두만이는 결국 지원병이라는 형태로 전쟁터로 내몰린다. 1장에서 우리는 일제의 가혹한 수탈이 우리의 청춘 남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남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장의 중심인물은 황달칠과 조카인 어린 용길이다. 애국반회의에 참석한 황달칠은 구장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 듣는다. 태평양 전쟁을 빨리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도에서 국가에 비행기 한 대를 헌납하기로 했다면서 주민들에게 금붙이를 헌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금 웃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통보는 여러분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들으시오. 예- 대동아 전쟁을 하루 속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국가에 비행기를 한 대 헌납하기로 했다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그동안 여러 차례 국방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 대신 금반지니 금팔찌니 금목걸이 같은 금붙이를 헌납하기로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87) 하근찬, “산에 들에”, 「현대문학사」, 1984, pp.27-28.

돈 대신 금반지나 금팔찌나 금목걸이 같은 금붙이 폐물을 헌납하게 되었다는 말에 모두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들이 되어 허- 웃기도 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옆 사람과 수군거리기도 했다.⁸⁸⁾

공출할 유기도 없어서 찢찢맨다는 주민들의 말에 일제의 앞잡이인 구장은 ‘전쟁에 만일 진다면 금붙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반강제적으로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간다. 더구나 동리마다 공출 양을 정해 놓았다는 것은 일제에 의한 수탈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행되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황달칠과 조카 사이에는 비밀이 있다. 하나는 독립군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금붙이를 땅에 묻어 숨겨 놓은 것에 관한 것이다. 어린 용길이는 마을 어린이들과 어울려 놀며 그 금붙이 자랑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비밀누설 일보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황달칠은 주재소에 잡혀가 금붙이 숨긴 곳을 밝히라고 혹독한 위협과 고문을 당한다. 하지만 황달칠은 끝까지 잡아떼어 마침내 징용으로 끌려가는 고초를 당한다.

2) 사회적 억압



일제는 우리민족에게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요하며 황국신민임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군림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종속된 생명체로써만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였다.

“코노야로다찌!(이새끼들)”(중략)

“나니오(똥을) 구경하고 있소까! 칙쇼!(개같은 새끼들)”

악을 쓰면서 손에 쥔 가죽으로 된 채찍 같은 것을 마구 휘둘러 닥치는 대로 내갈기는 것이었다.

비이십구의 비행운에 잠시 뉘을 잃고 있다가 난데없는 채찍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넋다 정신없이 골목길을 뛰어 달아났다. 황달수도 등에 채찍을 한 대 얻어맞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마구 내달았다.⁸⁹⁾

88) 하근찬, 「산에 들에」 《현대문학사》, 1984, p.161.

89) 앞의 책, p.26.

일본인 순사나 헌병들이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본 것뿐인데 일본인 순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심리의 바탕에는 지배자의 거만함과 우리민족에 대한 무시가 항상 깔려 있다.

『산에 들에』3장에서 중심인물은 아오끼 소위와 무수리(무당)이다. 일제는 최후 수단으로 마을에 오래 된 당산나무와 서낭당을 헐어버리고 포대를 설치하려 한다. 일본인 장교는 당산나무와 서낭당이 영험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징 쇼가나이(조선 놈들은 할 수 없어)’하며 무시한다. 서낭당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연판장을 돌려 저지하려고 한 마을 노인의 턱수염을 당기며 “이 늙은 조센징,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땐 줄 알고 그따위 잠꼬대 같은 수작을 벌이는 거야!” 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통해서 억압과 멸시를 쏟아 내고 있다.

제3장을 통해서 일제가 위협과 억압을 통해 우리의 풍속이며 정신과 문화까지 빼앗으려는 문화적 침략이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 것인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에 들에』에 등장하는 조선인 순사나 헌병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황달칠을 더욱 악랄하게 고문한 자는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인 최순사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편의나 영달만을 위해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오히려 일제의 식민정책을 도왔던 인물들이 도처에서 권력을 누려왔던 당시의 사회의 모습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식민지 교육

일제치하 교육은 우리민족을 쉽게 통치하기 위한 식민지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말기에 학생들은 입학하면 군사훈련을 받고 근로 동원에 나가게 된다. 이 시기 학교생활은 작가가 ‘최초로 맛 본 쓴맛’으로 기억될 만큼 힘든 생활이었다. 이 경험은 자전적인 소설 『죽창을 버리던 날』, 『삼십 이때의 엽서』 등에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일본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에서 소수의 조선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잘 묘사되고 있다. 짓궂은 상급생의 괴롭힘, 과중한 노력동원에 따른 괴로움과 배고픔 등이 작품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공부하는 날은 거의 없고 연일 일뜬질이었다. 산에 가서 장작 운반해 내려오기, 관솔 따기, 소나무뿌리 캐기, 황무지 개간하기, 보리메기, 모심기, 퇴비 만들기, 심지어 운동장 둘레까지 파 일구어 피마자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야단이었다.

그리고 걸핏하면 교련이었다.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지구베에이’를 섬멸한다고 야! 야! 고향을 질러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은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밥이라 먹고 돌아서면 벌써 배가 고플 지경이었다. 노상 옥수수밥 아니면 콩깍묵 밥이 식기에 절반도 차지 않는 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급생들의 성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굶실거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걸핏하면 기합이었다. 기합도 그저 몇 차례 두들기거나 엎드려 뺨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견 사람을 놀림감으로 생각하려 드는 것이었다.⁹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하지 않고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일제의 우민화 정책의 일단을 보여고 있다. 죽창으로 상징되는 일제 치하 학교생활의 고통을 『죽창을 버리던 날』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은 배고픔이 극심하여 순찰을 돌다 기숙사용 채마밭에서 오이를 따먹다가 호되게 기합을 당한다. 당시 학교의 편제 역시 군대식으로 되어 있어 학교조차 군대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책 및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실지로 그 무렵은 학교 편성도 군대 편제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다. 학교가 하나의 연대인 것이었다. 학년은 중대, 학급은 소대였다. 그러니까 교장은 연대장이라 불렀고, 학년주임은 중대장, 학급담임은 소대장이라 했다. 재재만 없는 것이었다.

신입생들은 비록 각반을 짧은 즈봉 밑의 맨다리에 감고 있긴 했지만 어엿한 1중대 각 소대의 병사인 셈이다. 그리고 운동장도 연병장이라 불렀다.⁹¹⁾

일본인 교장이나 선생의 모습도 뺨뺨머리에 전투 모자를 쓰고 각반을 찬 군인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들에게 조선학생들 교육은 황국신민으로 조선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름뿐인 식민지 교육일 뿐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감시는 학교에서부터

90) 하근찬, “죽창을 버리던 날”, 『산울림』, 한겨레, 1988, p.201.

91) 하근찬, “일본도”, 『한국남북문학 100선』, 일신서적출판사, 2005, p.76.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민족의 주체성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충직한 황국 신민인 학생을 만드는 것이 식민지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대응양식

일제치하라는 거센 물줄기는 민중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의 세계였다. 우리 민족은 근대화의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점령을 당하였고 폭압적인 무단 정치를 겪다가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라는 이름 하에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식민지 통치아래 민중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 졌고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민족의 진로를 내세우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결국 우리민족은 일본의 명령대로 공출 당하고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등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는 지식인이든 순박한 농민이든 어른들은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여 순응하거나 무력하게 한탄이나 불만 또는 소극적인 저항정도를 쏟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에 유, 소년기를 보낸 작가는 그 시절 체험한 일제치하의 사회상과 시대의 진로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빠진 지식인들, 그리고 핍박당하면서 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민중들의 생활을 작품으로 형상화 시켰다.

작품 속 인물들을 지식인과 일반 민중들로 분류하여 대응양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당시 현실에 대한 시대정신을 구분하여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1) 지식인의 대응

『죽창을 버리던 날』의 ‘나’는 죽창이라는 일제의 상징물을 통해 일제의 실체와 허상을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⁹²⁾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아버지

92) 이경수, “한의 예술적 승화”, 『문학사상』 7월호 1988.

“일제 말기의 군국주의적 교육이 하근찬의 유년 시적의 의식에 새겨놓은 상처는 같은 연배의 어느 작가보다도 강렬한 것 같다. 국방색 반즈봉에 각반을 차고 맨발로 죽창을 어깨에 맨 근로 흑사대 혹은

는 직접 교육에 참여하니 당시 학교교육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나 방학이 되어 돌아온 나의 학교생활의 괴로움을 적은 일기장을 보고 “학교 다니지 마라. 그런 놈의 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고.”라고 분노를 터뜨리며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러한 태도는 곧바로 번복된다.

“인제 학교 갈 날도 메칠 안 남았구나, 준비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예?”

하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십오일까지 방학이라메? 그럼 인제 메칠 안남았잖나.”⁹³⁾

아버지는 학교에 돌아가기 전날 “일찍 자거라 그래야 널 새벽 일찍 떠나지.”라고 한다. 학교에 갈 날이 되자 학교 소사에게 시켜 죽창을 깎아 나의 학교에 보내게 된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나약한 지식인들의 대응양식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나를 통해서는 우매한 우리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는 한계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스스로 포기한 채 그 시대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지식인들의 이런 대응은 식민지 국가에서 겪어야 했던 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할 우리민족이, 혼란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실까지 꼬집는 면밀함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울어지는 강』에서 지식인의 좌절과 순응은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한 선생은 일본인 교장과 싸워 모든 것이 일본화 되어 있는 다른 학교와 달리 민족주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사립학교인 치인학교에 부임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 학교에도 출퇴근 시간의 엄수, 일직과 숙직의 강화, 국방복 복장의 근무복, 교사가 술선수범하여 창씨개명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압력이 거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설립자인 송운장 교장은 ‘선각’과 ‘우국’이라는 설립 이념을 펼칠

모의병정의 자화상은 그의 또 다른 죽창을 버리던 날>에서 묘사된 모습이기도 하다.”고 했다.

93) 하근찬, “죽창을 버리던 날”, 『산울림』, 한겨레, 1988, p.265.

수 없게 되어 그 아들인 송화진에게 교장 자리를 물려준다. 송화진 교장은 이런 현실적인 시련에 처하여 고민하게 되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공문을 그대로 쫓아 학교의 방침을 세우기도 뭐했고 그렇다고 전혀 공문을 도외시 할 수도 없는 묘한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공문을 그대로 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학교 교육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으로 변모해 버리는 것을 뜻하며 또 공문을 전적으로 도외시 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난처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⁹⁴⁾

교장은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방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장이 바꾸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 결과 일본 시학관의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교장은 술선수범하여 국방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학교에 나오게 된다. 민족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지만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려면 일제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깎고 국방복을 입게 된다. 한선생은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으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폭풍우가 치는 날 아내의 산고와 함께 출산을 지켜보며 밤을 지낸 한선생은 넘어진 복숭아나무와 수없이 흩어진 열매들을 보며 어떤 거대한 힘에 떠밀리고 짓밟히고 있음을 느낀다.

“머릴 깎다니 안되지 안돼! 안 되고말고. 다시 길러야지, 다시 길러! 내가 머릴 깎을 줄 알아? 다시 척 멋있게 길러가지고 상해로 갈까. 상해로! 나도 상해로 갈까다 말이다.....”

악을 쓰듯 넉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한선생은 비실비실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이었다. 병병한 강물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한선생은 취중에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았으나 결국 다리 바닥에 보기 좋게 쓰러지고 말았다.⁹⁵⁾

94) 하근찬, “기울어지는 강”, 『한국문학전집』 21, p.293.

95) 앞의 책, pp.319-320.

결국 한선생도 자신의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 폭풍우가 치던 날 밤 아내의 출산과 함께 넘어진 복숭아나무와 흩어진 열매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음 속에 견고하게 버티던 것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떨어진 열매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하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결국 시대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 놓는 모습에서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설립자 송운장, 교장 송화진, 한선생, 교사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일제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알고 있었으나 결국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순응하고 말았다. 지식인들이 현실에 순응하는 나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중들의 대응

일제치하에서 민중들은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가고 수탈당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으며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소년들은 나름대로 저항 의식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할 수 있었던 저항은 일본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정도였다.

『그 해의 삽화』를 각색한 『준동화』에서는 어른들의 태도가 드러난다. 하나미 선생의 발톱이 예쁘다는 ‘수인’의 말에 “일본 년들은 잘 쳐 묵어서 안 그러나”라고 대꾸한다. 하나미 선생이 일본인 장교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왜놈들이 부끄럼을 아나.”라고 욕을 한다. 일본인들은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한다고 하자 “우리 조선사람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같이 목욕을 하다니, 큰 일 날 소리……”라고 한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현실적인 불만을 우리는 양반이고 일인들을 상놈으로, 그들은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밖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숨기거나 도망쳐버림으로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호』에서 늦그릇 공출이 시작되자 윤선생은 아들을 시켜 늦그릇을 산에 몰래 숨

겨 놓는다. 숨겨 놓아서 빼앗기지 않은 덕분에 해방이 되어 낫대야를 징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산에 들에』에서도 황달칠이는 금불이를 장독대 옆에다 묻어서 숨겨 둔다.

『야호』에서 ‘갑례’는 정신대에 끌려가다가 도망친다. 『산에 들에』에서 ‘황달칠’이 도 징용으로 끌려가다가 산으로 도망을 친다. 이런 도피는 잡힐 위험성이 있어 불안하므로 ‘갑례’는 사랑하는 영철이를 버리고 이웃 마을 태석이에게 서둘러 시집을 가게 되고, ‘황달칠’은 산으로 도피를 한다. 그 결과 가족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갑례의 아버지 윤생원과 황달칠의 형 황달수는 주저소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 이렇듯 힘없는 민중들은 마땅히 저항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체념함으로서 현실에 순응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소년 소녀들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기울어지는 강』에서 “면서기가 와 지랄같이 저렇게 헤이타이상처럼 하고 다니노”라고 하는 윤길이의 반감 표현은 남자들 복장이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처럼 변해가는 것에 대한 어린이들의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인이면서 일본인 학교에 다니거나 일본말을 하는 다른 학생들, 또는 일본인 교장, 헌병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불만을 나타낸다.

“조선 밥 먹고 일본 똥 끼냐?”라는 말은 소년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반감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자기들과 똑 같은 조선 아이가 어째서 일본 아이들처럼 헤어지지 않은 양복에 뽕질을 하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란도셀을 메고 일본 아이들의 학교에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일본서 살다가 왔으면 왔지 말이다. 그래서 용식이들은 그 가분수를 만나기만 하면 공연히 어딘가 근질근질해지는 듯

“야 임마 까불지 ,”

“쪽발이 학교 땡기면 쥘인줄 아나?”

“니 임마, 쪽발이가 사춘이가?” 이런 식이었다. (중략)

그러자 용식이는 그만 빗자루를 바께쓰 물 속에 텀병 집어넣어 냅다 휘저으며

“이 놈의 가시나들아! 와 조선 밥 묵고 일본 똥 끼노!”하고 내뿔었다. 96)

저항의식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조랑말』

96) 하근찬, “조랑말”, 『한국남북문학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93.

을 들 수 있다. 『조랑말』에 등장하는 용식이네 말 빌빌이는 몸집이 작고 재래종이며 물골이 말이 아니다. 갈비가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온몸의 털이 부스스 일어서 있고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기가 일쑤였다. 힘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걸핏하면 지르르 침이 흘렀다. 그러나 빌빌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감하게 변했다. 일본인 아이들이 다니는 동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케오의 삼촌인 ‘껌베이는 기마 헌병으로 막간 찬조공연을 한다. 멋진 양말을 타고 환상적인 묘기를 부리며 일본도를 빼어들고 돌격을 외친다.

번쩍 일본도를 쳐들며 냅다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바까각 빠까각…… 말은 더욱 신나게 달렸고 일본도는 번쩍번쩍 햇빛에 빛났다. 번쩍 거리는 일본도를 보자, 와 - 환호성은 절정에 달했다.

그때였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빌빌이가 쓴살같이 운동장 복판으로 뛰어든 것이다.

난데없이 뛰어들어 마치 놀란 듯이 혹은 갑자기 어디서 못 견디게 힘이 솟아나는 듯이 마구 달리는 것이었다.

껌베이의 말을 향하여 사정없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빌빌이가 돌진해 오자, 그만 껌베이의 말은 겁을 집어먹은 듯 히히힃! 콧소리도 요란하게 우뚝 멈추어 서며 대가리를 훌쩍 하늘로 쳐들었다. 그리고 훌쩍 쳐든 앞발로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순간, 말위에 섰던 껌베이는 일본도를 든 채 보기 좋게 땅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와 - 구경꾼들은 놀람과 긴장감으로 어쩔 줄 몰랐다. 본부석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 뛰어나왔다.

용식이네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곧 어깨춤이라도 추듯이 우쭐우쭐 나뭇가지를 흔들어들었다. 획 - 휘파람을 날리면서.

빌빌이는 제멋대로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다. 97)

돌격을 외치며 멋지게 양말을 타는 헌병을 조랑말이 멋지게 떨어뜨렸다. 이런 못생긴 조랑말의 행동은 일제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저항하는 우리 민중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인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비록 말을 통해 드러냈지만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의 강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97) 앞의 책, p.107.

학생의 저항의식이 드러나는 『삼십 이매의 엽서』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비추어 보는 이야기이다. 일제치하에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불과 녀달 동안에 삼십이매의 엽서를 보냈었는데 서술자는 가보처럼 6·25전쟁 속에서도 그 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그 엽서만은 한 장도 흘러버린 일이 없이 고이 간직해 오고 있다. 이 엽서를 볼 때 마다 그 시절이 회상되고 특히 아버지의 엽서에 관련된 일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과거에 최초로 반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약 녀 달 남짓한 기숙사 생활 동안 서른 두메나 되는 편지를 타지에 보낸 아들을 위해 보낸 고마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기반에 깔려 있다. 초점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편지와 그 편지로 인한 선배들의 핍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신입생인 주인공이 입학한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공부를 가르치는 곳으로의 의미보다 노동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마치 ‘근로 봉사대’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몸이 고달픈 것보다 일본인 선배들의 이유 없는 기합과 매질은 어린 주인공을 괴롭게 하는 진짜 이유였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아버지의 엽서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게 비교적 자유시간 다운 부드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잠시 후, 방문이 드르릉 열렸다. 편지였다. 엽서를 집어든 미우라가 거기에 적힌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름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다. 98)

미우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본인 선배이다. 아버지의 엽서를 강제로 읽히는 등 주인공을 괴롭히는 미우라 때문에 힘겨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일기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말을 써서 미우라의 표적이 되고 혹독한 기합을 받는다.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힌 나는 취침 중 미우라를 깨워 학교를 그만 두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다.

98) 하근찬, “삼십 이매의 엽서”, 『한국소설 문학대계』37, 동아출판사, 1995, p.317

나는 들이대듯이 말했다.

‘나 학교 퇴학할랍니다! 퇴학하고 집에 돌아갈랍니다.’ (중략)

미우라의 얼굴에는 분명 당황하는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중략)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자 마우라는 주먹으로 자기를 치려는 줄 알고 흠칠 놀라는 것이었다. 좁은 미간을 더 좁히며 가트다란 눈 꼬리에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화가 치밀어서 라기보다도 덜컥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인 듯했다. 99)

평상시 그토록 잔혹하게 했던 미우라는 당황해 한다. 퇴교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자 자신을 때리는 줄 알고 겁을 집어먹고 놀란다. 이 미우라라는 인물은 지배자로서의 일본, 다시 말해 부당한 꺾박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미우라는 앞에서 큰소리를 치지만 나의 반항이나 저항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인물이 되어 버린다. 이 작품은 순수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도』에서도 강한 저항의식은 드러난다. 『일본도』의 일화 중 세 번째는 해방 후 3·1운동 기념 축구시합에 관한 이야기이다. 원길이네 학교와 K중학교 축구시합 도중에 K중학교 선수 3명이 고의로 반칙을 범한다. 그 결과 축구시합은 집단 투석전으로 변해버린다. 시합은 물론 중지된다. 3번 학생의 형이 일본헌병이라는 사실에 학생들은 더욱 흥분한다. 그날 밤 원길이네 학생 백여 명은 K중학교 팀 3번 학생 집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돌을 던지며 항의한다. 그 때 3번 학생의 형이 화를 내며 달려 나온다. 3번의 형은 커다란 일본도를 번쩍 쳐들며 학생들을 협박하지만 학생들은 돌을 들고 대항한다.

큼직한 대문이 와당탕 열렸다. 그리고 불쑥 나타난 것은 어른이었다. 물론 남자였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그 남자의 손에 커다란 칼이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일본도인 것이다.

그 커다란 일본도를 번쩍 쳐들며,

“이 자식들! 맛 좀 볼래?”

버럭 소리를 질렀다.

99) 앞의 책, 1995, p.325

일본 헌병질을 했다는 3번의 형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질겁을 하고 우루루 마구 뺑소니를 쳤다. 원길이기도 질겁을 하고 마구 내달았다.

그러나 잠시 후, 학생들은 도로 뒤돌아섰다. 돌맹이를 하나씩 주워 들고 말이다. 누가 그러자고 입을 댄 것도 아니었으나, 절로 의사가 그렇게 돌아간 것이었다.

물론 원길이기도 돌맹이를 주워들었다. 원길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참 이상한 것이었다. 해방이 되어 온통 세상이 우리 세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본도를 집에 감추어 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겁나는 일이었다.

“덤벼라!”

“이 헌병 새끼!”

“왜놈 앞잡이”

“쪽발이 앞잡이”

다른 학생들이 냅다 고향을 지르며 돌을 던지다. 원길이기도,

“예, 이 앞잡이야!” 하면서 돌을 던졌다.

처음으로 남에게 돌을 던진 원길이는 건잡을 수 없이 가슴이 뛰었다. 100)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제 통치의 상징인 일본도를 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분노했다. 이 작품은 소년들의 감정적 대립을 표현하기보다 중학교 학생이 시대에 대해 깨닫고 대항하는 저항의식이 한층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도를 들고 위협하는 헌병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은 지금까지 누적되어왔던 저항의식을 표현한 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일제치하에서 당했던 민족적 억압에 대한 강한 감정적 대응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광복 후의 대응

70년대 초반 이후 하근찬은 일제치하를 회상하며 현실과 연결시키는 내용의 소설을 발표한다. 『원선생의 수업』(1973), 『노은사』(1977), 『두 축하연』(1979)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상 소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용이 일제치하에서 당한 억압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일제치하 관련 작품 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은 현재 시각에서 일본에 대한 회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작품이다. 일제치하의 사실로 끝나

100)하근찬, 『일본도』, 『한국남북문학 100선』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p.88-89.

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현재의 접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작가의 일본에 대한 인식 태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원선생의 수업』과 『노은사』는 액자소설 형태로 되어 있다. 『노은사』는 1인칭 서술자인 현재 ‘나’의 바깥 이야기와 1인칭 서술자인 과거 ‘나’의 안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구조의 소설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각기 다른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나’에 의해 진행되는 외부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해방된 지 30년이 지난 주인공 ‘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진사문 선생님을 광화문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현재의 ‘나’는 광화문 지하도를 건너가다가 복권 판매소 앞에 영거주춤 서서 복권을 사는 선생님을 발견하게 된다. 30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옛 은사를 만나 짙은 안부인사와 연락처를 받고 헤어지면서 주인공 현재의 ‘나’는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30년이 지난 후 우연히 광화문 지하도에서 만난 진사문 선생은 전라북도에서 있는 사립 소학교인 치문학교에 나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었다. 진선생은 조선어에 특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틈 있는 데로 민족의식을 불어 넣었다. 2학기에 조선어 마지막 수업시간에 선생은 실성한 사람처럼 먼저 큰 소리로 낭독하고 학생들은 따라 읽도록 하다가 학생들을 지명하여 따라 읽히는 등 열정적인 수업을 하고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 눈물을 흘리시며 힘없이 교실을 나가셨다. 나는 그런 선생님의 돌연한 행동에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그 후 전학관계로 선생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해방이 되자, 선생의 감격스러웠던 조선어 시간을 회상하곤 한다.

현재의 ‘나’는 진선생 직장을 찾아 갔으나 선생님은 한 사설 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슴 밑바닥에 소중히 간직되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선생을 만나지 않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오게 된다.

조선어를 그렇게 사랑했던 20대의 젊은 교사가 30년이라는 시간과 현실 속에서 결국 일본어 강사가 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통해 삶의 서글픔과 공허감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30년이란 세월은 그의 꿈과 가치를 조선

어에서 일본어로 바꾸도록 강요하였고,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거부했던 일상적 현실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노은사는 다만 한 사란의 생활인이며 소시민일 뿐이다. 그의 젊음이 가버린 것처럼 그의 꿈이 좌절되었고, 이제 그는 현실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과거의 연장으로서 현재를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행위가 전제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작가의 현재의 인식은 철저한 반일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노은사』에서 과거에 민족주의 정신이 강했던 진사문 선생이 현재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즉 『노은사』에서 ‘한준오’와 『원선생의 수업』에서 ‘원선생’이 생각하는 현재의 일본은,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일제 치하에 대한 연속이며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민족적 굴욕감에서 야기된 극명한 원수의 나라일 뿐이다.

30여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 동안에 역사는 큰 굽이를 돌아 과거의 일 대문에 일본을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점에 이르러 있다. 물론 과거를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방으로서 선린을 도모하고 여러모로 상호 교류를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에 넘치는 일본인 관광객이나 상인 같은 부류들을 보아도 나는 이제 크게 저항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심정이 매우 착잡했었지만 …… 곳곳에 일본어 강습소가 생기고 일본어가 정규교육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것 역시 시대의 추세로 도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진사문 선생이 일본어 강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략)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진사문 선생만은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았다. 그만큼 진선생은 나의 기억 속에 값진 존재로 소중하게 간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그만 흐물흐물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치 무슨 배신을 당한 것 같아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101)

일제치하를 과거의 감정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다. 현실은 일본에 대하여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사회의 구조나 시류는 이미 벗어나 있지만 웬지 진사문 선생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작가의 말 속에는 일본은 결코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고 협력국이 될 수 없다는 부르짖음이

101) 하근찬, “노은사”,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149.

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원선생의 수업』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원선생의 수업』은 3인칭 서술자인 현재 ‘원영배’의 바깥 이야기와 3인칭 서술자인 과거 ‘원영배’의 안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구조의 액자소설 형태로 되어 있다. 『원선생의 수업』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각기 다른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주제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원영배는 역사 선생으로서 일본과의 선린관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동안의 역사적인 치욕적이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역설한다. 원영배는 우찌야마 선생의 한국 방문으로 이루어진 환영회 겸 동창회에 참석한다. 그곳에서 원영배는 과거 중학 시절 조선인 학생들에게 악명 높았고 조센징이라 경멸하던 우찌야마를 회상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동창회에서는 동창회장 정두호가 일본어로 인사말을 하고 일본 군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원영배는 군국주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고 그 환영회를 망가뜨리게 된다.

원영배는 눈에서 가물거리던 아지랑이가 활짝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눈을 뚝 부릅떴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찌야마 선생이었다.

우찌야마 선생은 장단을 치던 젓가락을 멈추고 멀뚱히 정두호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있나 없나 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곧 그 표정은 경멸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아까 환영사 때처럼 얼른 그 표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큼지막한 코가 얼굴 한 가운데에 실룩하게 이지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정두호씨는 주먹을 흔들고 어깨를 우쭐거리가면서 그 군가를 계속하고 있었고 좌중은 장단을 맞추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집어쳐라야!”

마침내 원영배의 입에서 고탐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탐소리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상 한쪽을 들어버렸다.¹⁰²⁾

원영배의 행동은 과거의 경험 속에 묻혀 있는 일제의 탄압과 그 잔혹성에 대한

102) 하근찬, “두 축하연”, 『현대문학』 217, 1973, p.103.

회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았던 일본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오늘의 한국인들의 단순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퇴화를 지탄하는 것¹⁰³⁾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지나친 자기비하 태도는 일본에게 지배받고 그들의 대리전이라 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문화마저 종속되어 버렸다. 작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두 축하연』에서는 1인칭 서술자의 위치에서 잔치 장면을 서술한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소설가인 내가 친척의 결혼잔치에 참석해 겪게 되는 평범한 이야기이다. 소설적인 구성도 미흡하고 갈등관계도 단순해서 소설적인 흥미는 적지만, 일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흐름을 파괴하는 사촌 동서의 판소리에 찬사를 보냄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제2장 “某年 가을 某日”에서 사촌동서 되는 사람이 사위를 보는 결혼식 날 나는 신부 집에서 접대를 맡게 된다. 신랑의 회사 동료인 ‘야마구찌’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리랑을 부른다. “한국노래 참 좋습니다.”라는 야마구찌의 말에 ‘나’는 씩쓰레한 기분을 느끼고 실소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나 신부의 아버지인 사촌동서가 판소리 ‘흥부가’를 부르자 압도 된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뀌고 주눅이라도 든 사람처럼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야마구찌의 표정을 보며 ‘나’는 누구에게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형님’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이 작품 속의 일본인은 과거 군국주의적 지배자 상에서 벗어난 경제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한국 노래를 즐겨 부르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앞에서 한국인은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일본노래나 부르며 일본에 종속된 느낌을 주는 일본의 지배하던 시절 지냈던 근성을 지닌 채 처신을 잘 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체면도 없이 아부하는 모습에 작중의 일본인도 의아하게 느끼며 곧 경멸의 눈빛을 보인다. 과거의 지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 하는 일본인과 그들 앞에서 아부 하고 비위 맞추기 위해 애쓰는 한국인의 아이러니컬한 모습은 작가에 의해 철저히 비판을 받는다. 사업을 위해 일본인에게 아부하는 근성

103) 권영민, 「현실적 상황과 소설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 1978 봄, p.318.

을 보이는 『원선생의 수업』 동창회장 ‘정두호’와 동창들이나 『두 축하연』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는 신랑 회사 동료들의 모습을 경제적 사대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묘사하며, 이러한 태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 대해 작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과거의 사실은 역사로 남아있고, 일본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나간 역사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내려, 친절과는 다른 주체성을 가지고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가락 판소리 ‘홍보가’를 부르는 동서에게 형님이라는 존칭과 함께 찬사를 보내는 행위의 이면에는 우리 것을 소중히 하는 정신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화합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작가의 주체의식이 드러난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

하근찬의 소설세계는 70년대 중반 이후 또 한 번 소재 전환이 이루어진다. 전쟁과 관련된 소재에서 일제치하와 관련된 소재로 변하고 그 다음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눈이 머물게 되지만 2기가 끝나는 시기에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작품이 혼재되어 있고 지금 역시도 작가의 꾸준한 집필 활동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산에 들에』(1983) 이후 작가는 더 이상 전쟁을 소재로 택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든가 일제치하라든가 하는 아픈 과거는 이미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더 이상 외래의 것에 빠앗기지 않고 우리의 것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인가? 후기 소설에서 전통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소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80년대 초반 이후는 거의 일상적인 것과 일화를 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80년대 작품은 보다 직접성을 띠는 ‘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조상의 문집』(1984), 『화가 남궁 씨의 수염』(1985), 『공예가 심 씨의 집』(1986)은 대표적인 일상 체험의 소설들이다. 이 소설들은 1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서술함으로써 사소설의 형식을 취하는 데 그 이유는 작가 자신이 신변에서 겪은 일을 굳이 꾸며내려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자 한 의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품들 거의 대부분이 나레이터인 ‘나’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나’는 실제의 자 자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소설의 형식을 취하되, 신변잡기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쓴다.¹⁰⁴⁾

신변잡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작가의 말은 소설의 형식이 변하고 소재도 변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구제 의식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작가 스스로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내용이든 작품으로 빛

104) 하근찬, 『화가 남궁씨의 수염』, 책 세상, 1988, p.291.

어내는 다시 말하면 일작품 주의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¹⁰⁵⁾ 라고 한 것처럼 하나의 작품에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수필의 형식으로 쓰여진 하근찬의 후기 작품들은 사회와 역사, 인생에 대한 통찰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산업화의 부조리

근대화의 물결은 전후의 상흔을 딛고 일어서 이전의 삶의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는 겉으로는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내면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산업화의 부조리를 드러내면서 현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삼각의 집』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중심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정을 지닌 채 객관적인 거리에서 사건을 관찰할 수 있는 1인칭 서술자 ‘나’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무허가 판잣집 사람들을 대책 없이 내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미국의 개집 - 종두네 천막집 - 새 교회 사진 모두가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고난의 주인공인 ‘종두’, 관찰자인 ‘나’ 그리고 종두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외부폭력의 상징으로서의 ‘교회’가 주된 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술자 나는 국내 사진 콘테스트에 입상한 적이 있는 P군에게서 ‘국제 명작 사진첩’을 빌어다 보고 있을 때 아들 영일이가 ‘알제리아의 소년’이라는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사진책 속에는 나의 관심을 끄는 두 개의 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알제리의 독립운동 단체 유격대원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깡통과 꽃을 들고 있는 ‘식민지의 봄’이라는 제목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크리스마스 때의 어느 개집을 찍은 사진이다. 개집은 큼직한 삼각형 집인데 온갖 장식이 되어 있고 늙은 개가 태평하게 즐기고 있었다.

알제리아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중동 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 흔히 있는 소도시의 뒷골목, 그 비뚤름하고 희끄무레한 담벼락에 남루한 옷

105) 하근찬, “전쟁의 아픔을 증언한 이야기”, 『한국문학』 138, 1985, pp.71-72.

을 걸친 소년이 한 손에는 불란서 문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깡통을 들고, 한 손에는 하얀 꽃을 한 송이 들고 기대 서 있는 사진이었다. 영일이가 ‘야! 이 자식’하고 두 눈을 반짝거린 것처럼 나에게도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었다. (중략)

움푹 꺼져 들어간 눈자위 속에서 두 눈은 살아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알제리 독립운동 단체인 FLN의 유격대원 썸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찌 ‘봄’이 되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젊은이의 어깨죽지에 조그만 나비가 한 마리 붙어있었다. (중략)

개집이었다. 현관 옆에 있는 개집을 정면으로 크게 찍은 것이었다. 큼지막한 삼각형의 집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붕이 삐죽하게 뒤로 솟아 있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 삼각형이었다. 곁에 조그만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져 있고, 지붕에는 십자가가 꽃혀 있었다. 그리고 금종이 은종이로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식들이 현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잘 장식된 집 속테 늙은 개가 한 마리 떡 앞드려서 밖으로 주둥이를 쭉 내밀고 졸고 있는 것이었다.¹⁰⁶⁾

내가 관심을 둔 사진은 호화로운 개집과, 그 개만도 못한 인간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이 대비된 것이다. 여기에서 사진에 대한 ‘나’의 기준이 제시된다. ‘나’는 단순한 미적 감각만을 앞세우고 찍은 사진은 별로 높이 사지 않는다. 사진 속에 인생과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작용하는 작품이라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되어 대조되는 두 장면의 사진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자 영일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버지!” 나를 쳐다보았다.

“응?”

“꼭 미국 개집 같죠?”

“뭐?”

“책에 있는 미국 개집 말이예요. 꼭 그 개집간이 생겼잖아요. 삐죽하고…….”

나는 얼른 두 눈을 부릅뜨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냐!” 하고 나무랐다.

그러나 이미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삼각형인 것이었다. 물론 이집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진에 있는 그 개집처럼 오각형

106) 강신재, 하근찬 “삼각의 집”, 『한국소설 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5, p.503.

이었다. 지면에서 약 세 뼘 가량 흠으로 벽을 쌓아서 그 위에 삐죽하게 지붕을 얹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얼른 보면 이것도 역시 그 개집처럼 삼각형으로 보였다. 107)

‘나’는 사촌 처형 종두가 사는 집을 본다. 종두의 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이다. 재미있게도 종두의 집은 사진에서 본 개집과 모양이 비슷하다. 종두는 솔밭에 핑을 기를 계획으로 집 안에서 핑의 새끼들을 기르고 있다. 종두가 살아오면서 느낀 철학은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일 정도로 인간 사회를 불신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종두는 인간 사회와 무관한 동물인 핑을 길러 핑의 왕국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트럼펫을 불며 핑의 새끼를 부르는 종두의 모습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진 거리를 찾아다니는 P군을 만나 종두의 집을 소개하고 찾아 나선다. 그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참히 철거되어가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들이다.

나는 허겁지겁 언덕마루로 올라갔다. 언덕마루에 올라선 나는 그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참으로 뜻밖의 광경이 눈 아래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허가 판잣집 철거인 모양이었다. 저 건너 솔밭 쪽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을씨년스러운 종두네 삼각형의 집도 벌써 납작해져 버린 듯 잘 눈에 띄지가 않았다. 트럼펫 소리만 처량하게 흘러오고 있었다. 물론 아리랑이었다. 핑들을 부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108)

무참하게 헐려가는 판잣집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충격을 받고 딸국질을 하게 된다. 기독교 계통에서 발간하는 신문의 기사에서 새로 건립할 교회의 입체투시도를 보고 교회의 모습과 삼각형의 종두의 집이 같은 모양임을 알게 된다.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해서 불하받은 대지에 새 교회를 세워 변두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나’는 감기에 걸렸는지 재채기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종두의 고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 그것은 두 번째 삼각의 집으로 상징되는 그의 가난이 두 개의 삼각의 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삼각의집은 현실의 냉소성과 삭막함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삼각의 집은 미국 자본주의의 풍요를 상

107) 앞의 책. p.511.

108) 앞의 책. p.523.

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삼각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성전을 건립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난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그들의 소박한 희망마저도 무너뜨리고 마는 아이러니칼한 존재로서의 삼각의 집 그것이다.

산업화와 현대화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모를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허가 판잣집의 철거도 그 일부분이다. 작가가 드러내려는 것은 종두와 같이,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된 현실의 안타까움이다. 종두에게 주어진 상황은 경제력의 미비와 사회에서 소외된 외곽인으로서 삶이다. 그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가난과 무능력으로 인해 소외됨을 의미한다. 현실은 순수하게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첫머리에 제시된 사진들은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산업화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의 역할을 한다. 식민지의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년 병사와,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의 개집이라는 두 소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다. 더구나 판잣집이 헐리고 교회가 들어서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내걸고 있는 교회조차 얼마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대화 산업화라는 실상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삶을 깨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가는 분노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나마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종두의 삶에 대한 의지는 무너져 버린다. 이처럼 현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 노력, 희망마저 빼앗아 미국의 개집만도 못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된 현대 사회는 종두 같은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쟁이나 일제치하를 겪으면서도 질긴 의지로 살아왔던 민중이, 또 다른 시련인 현대라는 냉혹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끈하게 살아가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하근찬 문학이 제시하는 끈끈한 민중성

이라 할 수 있다.

2. 전통의 계승

『왕릉과 주둔군』에서 하근찬은 서양문화에 파괴되어 가는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양문화는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에게 구호물자를 주는 구원을 주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하근찬은 소설『낙도』에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서양의 문화, 특히 기독교의 이미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한 서양의 문화가 전쟁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사회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낙도』에는 두 개의 종소리가 울린다. 하나는 학교의 종소리고, 하나는 예배당의 종소리이다. 예배당에 달린 종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학교의 것보다 훨씬 종소리가 크고 우렁차다. 즉 서양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거대한 힘이 우리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김선생’은 학예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빨간 털모자를 눌러 쓴 전도부인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회의 세례식이 있는데 시간이 겹치니 학예 발표회를 뒤로 미뤄 달라”고 요구한다. 육지에서 서양선교사가 오는 데 학예회 시간과 겹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는 교장 대신 김선생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전도부인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아이들만이라도 일찍 보내 달라고 주문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사라진다. 학예회는 성황리에 시작되고 결국 학예회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세례식도 치러진다. 서양 선교사는 너그럽고 품위 있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김선생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는 전도부인의 말에 서양 선교사가 보이는 태도는 그러한 의미와 상반된다.

“흥……괘씸한 녀석이로군, 그대로 뒀선 안 되겠는데……”(중략)

“이름을 알아서 통지를 하십시오. 그런 선생은 섬에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댄 데로 보내야겠습니다. 교육청에 잘 아는 우리 친구 있습니다.”(중략)

“그런 선생은 또 섬으로 보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선생은 도시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¹⁰⁹⁾

서양 선교사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줄 구호물자를 자루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다. 그 옷가지를 열어 입은 아이들은 멋진 옷을 뽐내며 다니게 되고 주민들 역시 옷가지를 열어 입으면서 그저 ‘주여, 주여’를 외치게 된다.

선교사가 말하는 사업이 김선생의 학예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사업이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도부인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김선생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선교사의 말은 구호물자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구호물자로 옷을 입은 창국이 모습 자체가 구호물자 같기만 하다. 그리고 안선생의 “훗훗호……그렇구만예, 꼭 동화책에 나오는 집 없는 아이 같구만 예”하는 말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와 문화적인 우위를 차지해 버리는 강한 서양 문화에 대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문화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 없는 아이’와 같은 우리문화에 대해 무시하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강한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서 낙도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느끼는 서양 문화는 강한 힘을 지닌 것이다. 그들은 강한 문화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 문화적 지배 아래에서 너무 약하기만 한 ‘우리’에 대해 작가는 탄식하게 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왕릉과 주둔군』에서 외국 군대에 의한 전통의 파괴에 따른 계승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일상의 소재에서 보여주는 전통에 관한 내용은 전통에 대하여 얼마만큼이나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지 못함을 강하게 질책하는 작품으로 『조상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이런 전통 고수형의 인물들은 고향을 자기 동일성으로 이해함으로써 시대적 변

109) 하근찬, “낙도”, 『현대 한국문학전집』 13, 신구문화사, 1981, p.145.

화에 의해 함몰되어가는 고향을 자기 파괴 내지는 부권의 파괴라고 인식하고 고향적인 것과 뿌리 찾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과 자기정체성이 극단적으로 분해된 현실에서 향토와 고향의식의 회복을 향하여 몸부림친다.

이 작품은 그렇게 버리고 공들여 만든 조상의 문집이 휴지화 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충격으로 죽어가는 노인을 통해 고향적인 것과 부권의 부재를 심도 높게 그리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나 의미를 상실해 가는 증조부의 문집에 대한 송노인의 애뜻한 향수를 담담하게 서술해 감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집착과 향수를 연민의 감정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송노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조부의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조부가 남긴 매산 문집을 책으로 만들 것을 결심한다. 매산 송인도는 구한말 학자로서 한일합병으로 열하루를 단식하고, 이후로 세상을 비판하여 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등 자신의 뜻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송노인은 이처럼 훌륭한 조상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들 명준에게 책을 만들기를 권하지만 ‘애국자라는 말 자체가 벌써 멀고 서먹한 것으로 들린다.’ 즉 명준에게는 증조부의 문집은 종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홍보실에 근무하는 아들의 태도는 시큰둥하다.

“세상에 펴낼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러죠, 요즘 세상에 이런 책이 무슨 가치가 있던 말입니까?” 라고 하는 아들의 태도와 “이 문집을 펴내면 정신을 훨씬 더 차리게 된다. 그 말 인가요? 읽지도 못할 이런 한문책 나부랭이가 뭐라고……”하는 말을 듣고는 송노인은 분노를 느낀다.

결국 송노인은 고향의 문중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얻어 조부의 문집을 만들게 된다. 고생은 했지만 흐뭇한 마음으로 서울로 와 아는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손의 도리를 했구먼”하는 노인들의 말과는 달리 자식들은 그 책을 보고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린 손주는 “이거 순 한문 아냐, 후졌다 후졌다.”라고 하며 송노인을 실망시킨다.

흰눈이 나부끼는 저녁 송노인은 손자 명준이 사온 호떡을 썬 봉지가 다름 아닌 조상의 문집을 찢어 만든 것을 알고 두 눈이 화끈해지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

솟는 현기증으로 방바닥에 내려앉듯 쓰러지고, 이튿날 아무렇게나 구겨지듯 쓰러져 싸늘하게 굳어진 모습으로 며느리에게 발견된다.

이 작품은 조부라는 전통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간직하며 살던 송노인의 꿈이 아들과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과정을 송노인의 죽음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조상의 숭고한 업적마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과 송노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시대적 추이 속에서 송노인의 죽음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송노인의 죽음은 물질주의적 세계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적 행동으로 근대라는 세계에 대한 환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송노인의 근대적인 것과의 화해의 실패는 작품에서 비극적인 인식을 가중시키고 이는 빠르게 밀려들어오는 외래적 요소에 대해 바람직하게 대응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반성과 전통의 끈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근대의 대세는 인정했으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결국 작가는 근대를 인간 주체를 고립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작가가 송노인이나 『왕릉과 주둔군』의 박첨지를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전통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된 외래적 요소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화가 남궁씨의 수염』에서는 수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의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 산업화 사회의 출현과 서구사조의 수입으로 잃어버린 한국사회의 향토와 고향의식 회복 추구에 주제가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남궁’씨는 할아버지의 너불 너불한 수염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앨범을 정리하다 ‘남궁’은 문득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길러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할아버지와 부친의 두 수염과 연관시켜서 자기의 수염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 두 수염의 중간이 될까, 맨 아래가 될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수염과 동격이 될까, 혹은 그 이상이 될까, 하는 호기심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¹¹⁰⁾

수염을 기르는 ‘남궁’씨는 자신의 수염이 불품이 없음을 불만으로 여기며 실망하고 수염을 자르기로 결심한다.

“만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모양이니……”

남궁의 말고 표정에서 어쩐지 그가 자기의 조부와 부친, 두 분의 수염과 견주어서 하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문득 들어서 나는

“자네 할아버지 수염보다는 못한 것 같고……어떻게? 부친의 수염과 비교하면……”

(중략)

“못해”

남궁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¹¹¹⁾

그는 수염이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자라지 않는 이유를 고향을 등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작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에서 작가로서의 근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계열의 작품들은 우직하리만치 과거에 집착하며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고 현실에 대한 강한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말이지, 내 수염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보다 못한 게 아무래도 고향을 등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내가 고향을 등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객지에서 태어났고, 객지에서 자랐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줄곧 서울에서 살아서 이제 말하자면 서울에 뿌리를 내린 셈이니 결과적으로 고향을 등진 셈이 됐거든,” (중략)

“더구나 나는 증손이거든요. 고향을 지킬 의무가 있는 증손이 고향을 등졌으니……”¹¹²⁾

110) 하근찬, “화가 남궁씨의 수염”,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213.

111) 앞의 책, p.215.

112) 앞의 책, p.221.

그리고 고향을 등지는 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현대인의 정신장애가 시작된 원인으로 해석한다.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현대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회지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 때문에 이어져 오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변해 버린 현대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은 『공예가 심씨의 딸』에서도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과거에 대한 애착과 규격화, 기계화 되어버리는 현대사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통해 한국적인 장인 정신이 전승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예가 심용은 칼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는 중조부인 심만술이 만든 장도를 가보로 간직하고 있다. 이 장도는 심만술이 벗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1년간 혼을 담아 만든 작품이었다. 이 장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심만술의 장인 정신에 놀라움을 느꼈다.

“아 그런 칼이군요.”

“정말 귀중한 가보네요.”

나와 지형은 감탄어린 눈으로 벽에 걸려 있는 액자 속의 그 장도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113)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일년 동안이나 정성을 쏟은 옛날 사람들의 예술가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 하고 그들은 현대인과는 다른 무언가 뛰어나고 유장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보다 예술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완벽한 미를 추구했던 장인들의 삶을 대량생산 시대에 물질 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대립시켰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것에 대해 집착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일반적인 회귀의식을 작품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잔뜩 기대를 하고 심씨의 작업실을 구경하였다. 그러나 심씨의 작업실을 보고 무언가 다른 고상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깨어진다. 직공들

113) 하근찬, “공예가 심씨의 집”,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241.

이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분업화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실의 모습은 상상을 빚나가는 일반화된 공장이었다. 더구나 하루에 오십여 개의 칼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듣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허탈해 진다.

그러나 심씨의 안내를 받고 다른 작업실로 들어갔다. 심씨의 딸이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작업에 열중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다.

“작품 하나를 가지고 반년을 끄기도 해요. 여간 정성이 아니지요, 작품이 좀 더 완성되면 개인전을 열어줄까 하죠.”(중략)

“심씨의 딸은 저희 고조부처럼 작품 속에 혼을 불어 넣고 있는 것 같지?”¹¹⁴⁾

이런 심씨 딸의 창작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인 만족을 줌으로써 ‘나’의 내적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예술가적인 집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독특하게 형상화 하고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 본 작품 몇 편을 통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산업사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생활터전을 옮김으로써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통을 고리타분한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홀대하는 인물들이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본래의 혼이 담겨 있는 장인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향을 떠나 뿌리를 잃어버린 현대인과 기업인이 되어버린 장인의 모습에서 물질에 쫓겨 본질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나오는 것이다.

그들의 강한 문화에 대한 태도와 상대적으로 우리의 소극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필요하며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계승해야 함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다.

114) 앞의 책, p,250.

3. 삶에 대한 성찰

산업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통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하근찬의 후기작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이것은 작가가 노년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허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 혹은 죽음 그 이후의 문제 같은 불가사의한 세계가 내 작품의 소재로 간혹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이 황혼기로 접어드는 맛이 아닌가 여겨진다.¹¹⁵⁾

‘죽음’이라든가 ‘신’,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소설 『모일소묘』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 작품에서 ‘나’로 대변되는 작가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였다. ‘나’는 임신부인 아내가 하혈을 하자 병원에 입원시켜 수술을 준비한다. 병원비가 없어 겨우 원고료를 선불로 구해온다. 수술을 하는 아내를 기다리며 처음 느껴본 매달리고 싶은 감정은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반 혼수상태인 아내를 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합창단의 찬송가를 들으며 한없는 경외감과 친화감으로 바뀐다. 소설 전반부에서 매일 새벽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소음과 공해라고 생각하던 감정은 찬송가를 들으며 종교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건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비가시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을 때는 새벽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공해라고만 생각되었는데 어느 틈엔가 종교에 대해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하근찬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덧없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죽음에 접어드는 일련의 과정(늙음, 병듦, 죽음)을 통하여 구체화 된다. 작가는 죽음으로 인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품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작가가 죽음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설정한 인생의 여정은 노년

115) 하근찬, 『모일소묘』, 책 세상, 1988. p.291.

기의 회상을 거쳐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대하면서 결국 인간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죽음과 연관시켜 탐색해보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현실에 대한 소외감과 삶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작품으로『전차 구경』을 들 수 있다. 옛날 전차 운전사 ‘조주사’는 지하철 개통 소식을 듣고 지하철 구경을 간다.

별안간 조주사는 기분이 약간 허전해진다. 어쩐지 푸대접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다. 우선 착 너무 빨리 자기에게서 떨어져 가는 것이다. 그 보고 싶은 운전실 내부도 좀 보여주지 않고 말이다. 그리고 운전사 역시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 친밀감에서 보낸 인사말과 웃음에 대해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다니……. 선배를 몰라보고서 ……: 입맛을 쫓쫓 다시며 걷기 시작하는 조주사는 쓸쓸하다. 눈부신 세상의 한쪽 가로 밀려나 버린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이다.¹¹⁶⁾

지하철을 구경하고 나서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조주사는 옛날 전차가 전시되어 있는 남산공원으로 손자 기운이를 데리고 간다. 그러나 기운이는 조주사가 좋아하는 옛것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지하철, 부라보콘, 넘버원 초컬릿, 콜라, 예식장의 피아노 소리에 맞춘 결혼식’으로 대표되는 기운이의 현대화된 세계와 ‘전차, 박하사탕, 깨엿, 꼬꼬재배’로 대표되는 조주사의 과거의 세계는 너무도 확연히 구별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주사는 전차를 몰고 한강다리를 건너던 과거를 회상하며 “옛날이 좋았어, 좋았고 말고……” 라고 한탄한다.

“좌우간 옛날 전차는 좋았고 말고, 기적 소리도 멋있었지. 뚜우 새벽에 울리는 첫 기적 소리도 멋있고 뚜우 자정이 가까워서 울리는 마지막 기적 소리도 멋있었지. 운치가 있었어, 있었고 말고 …….”¹¹⁷⁾

조주사는 현실 세계에 적응해가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 자신이 자

116) 하근찬, “전차 구경”, 『한국남북문학 100선』 42 일신서적출판사, 2005, p.115.

117) 앞의 책, p129

꾸 떨어지고 있다는 소외감이다. 자꾸만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지는 일종의 삶에 대한 허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허무감은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대하면서 한층 심화된다. 죽음 후의 허무감은 무엇으로 메워질 수 있을까? 작가는 죽음 그 이후와 실존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타인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허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죽음에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작가는 그 의미를 전생(轉生) 즉 윤회의 원리로 보았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다음의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환생을 한다는 윤회사상을 믿어왔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전생(轉生)하기를 바라는 작가의식이 드러난 작품으로『겨울 저녁놀이 있다.』이 있다. ‘나’는 친구들과 송광사에 갔다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의 무신론을 들었다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목격한 무수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얻게 된 허무의식으로서의 무신론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관한 회상을 하게 된다고 『겨울 저녁놀이』의 서두에서 작가는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 가닥 연기로, 한 줌의 흙으로 즉 영겁의 무로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 전생하여 다시 이승에 현신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기독교의 교리처럼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없기보다는 존재하기를 바라고 싶다. 영혼이 없다고 하면 죽음이란 곧 영겁의 무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찔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도무지 영겁의 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나도 아득하고 공허해서 현기증과 함께 전율이 느껴질 따름이다. 그런 영혼이 있되, 어떻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게 좋을까. 나는 그것이 윤회 전생하는 형태로 존재했으면 싶다. 118)

죽음은 돌아오지 않음이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며 이별이다. 나이

118) 하근찬, 『겨울 저녁 놀이』, 책 세상, 1988, p183.

가 들면 누구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노년을 준비하게 된다. 작가가 죽음에 대하여 자꾸 떠 올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노년을 맞이하는 작가의 인생에서 연유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작가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단순히 무(無)로 끝나버린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 또한 어린 시절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한 회고이며 그와 동시에 전생(轉生)에 대한 희구이다. 작가는 착한 일을 해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순박하고 착한 인간성을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작가의 이러한 의식은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참혹해진 인간성에 대한 반성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전쟁 피해자들, 일제치하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전후 문학 작가의 한사람으로 꾸준히 전쟁을 소재로 해온 하근찬의 문학세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전쟁이나 일제치하, 현대사회의 부조리 등 현실에 적용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많은 좌절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작품으로 형상화시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양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전쟁을 형상화한 작품과 일제치하 소년시절 체험의 소설에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 시기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현실인식’과 ‘대응양상’을 살펴보았다.

2장 『전쟁 체험의 형상화』에서 작가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을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성에 대해 육체의 훼손, 가치관의 혼란이나 순수성의 파괴와 여인네들의 한 맺힘으로 인식하여 작품으로 형상화 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 비극에만 묻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민족들의 전쟁에 대한 강한 생명력, 끈질긴 극복의지를 작가는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3장 『식민지 체험의 증언』에서는, 일제치하 관련 작품들을 통하여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일본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 식민지 교육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일제치하에서 자행된 징용, 징병, 공출 등 수탈과 멸시와 억압된 제도들을 전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민족의 수난이라는 현실이 드러나며 이런 현실극복을 위한 대응 양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다. 일제치하 중학교 체험의 학교생활이라든가 기숙사 생활에서 보이는 고달픈 현실에 대한 표현은 식민지 국민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환기시켜 주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는 소년들의 모습에서 강한 민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복 후 일제에 대한 회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에서는 여전히 식민지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역사에 타협해 버리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식민지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작가는 지속되는 일본의 영향에 대해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주장하는 강한 민

족의식의 고취를 결말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장 『현실에 대한 통찰』에서는 전쟁이란 소재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바라 본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그 내용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산업화의 부조리와 전통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작가가 노년이 되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문제이다. 산업화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인간성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실의 냉혹함에 좌절하는 민중들의 삶을 수반한다. 작가는 상류계층의 화려한 삶보다는 소시민으로 나타나는 민중의 삶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을 보여줌으로써 산업화 시대에 동반되는 그들의 아픔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전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통의 소중함과 전통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우리 것들에 대한 향수를 형상화 하였다.

『삶에 대한 성찰』에서는 존재에 대한 실존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작품에 드러나는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전생을 회구하는 작가의 생각을 형상화함으로써 노년에 접어드는 작가의 심경상의 변화와 인생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형상화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가가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현실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는 전쟁의 상황과 일제 치하의 상황, 그리고 일상에서의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작가는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념을 보여주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통은 외래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보존을 통해 민족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랜 전쟁과 이민족의 압제를 통한 결론이며,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셋째 민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근찬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대체로 보편적인 민중들이다. 그는 작품을 통해 오랜 역사적 시련에 운명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제시라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의지와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민중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하근찬은 이와 같이 그 당시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현실 및 역사적 아픔

들을 자세하게 그려내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본다면 문학은 단순한 언어 미학적 구조가 전부가 아니며 현실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 속에 반영하고 형상화 시켜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하는 반영론적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는 리얼리즘의 작가임이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작품으로 담아낸 작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하근찬 소설에 드러난 현실인식과 그에 따른 작가의 대응양식을 살펴보았으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많은 작품들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심도 있는 작품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서 행한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으며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른 참신함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부기하고자 한다. 또한 70년대 후반의 작품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별로 없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한계로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하근찬, 『산울림』, 한겨레, 1988.
- 하근찬 外, 『현대한국문학전집』 13, 신구문화사, 1967.
- 하근찬 外, 『한국문학전집』 21, 삼성출판사, 1985.
- 강신재/하근찬, 『한국소설문학대계』 37, 동아출판사, 1998.
- 하근찬, 『야호』, 중앙일보사, 1987.
- 하근찬,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10, 중앙일보사, 1984.
- 하근찬, 『모일소묘, 겨울저녁놀이』, 책 세상, 1988.
- 하근찬, 『산에 들에』, 문학사상사, 1988.
- 하근찬, 『내마음의 풍금』, 바다출판사, 1999.
- 하근찬, 이범서, 서종택 지음, 『베스트셀러 한국문학선 33』, 소담출판사, 2002.

2. 단행본

-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1979.
- 천이두,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3.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9.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 구인환, 『한국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1995.
- 박동규, 『전후 한국소설의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6.
-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사, 1997.
- 김진기, 조미숙 공저, 『한국현대작가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3. 학위논문

- 하지영, 『하근찬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7.
- 한혜선, 『하근찬 소설의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1992.
- 김홍배, 『하근찬 소설 모티브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6.
- 정재은, 『하근찬 소설 연구』, 성균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정분, 『하근찬 소설에 나타난 인물형 연구』, 신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은영, 『하근찬 소설 연구』, 세종대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순동, 『하근찬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재수, 『하근찬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권미경, 『하근찬 소설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4. 문예지 및 평론집

- 《문학과 지성》 11, 1973, 3.
- 《문학과 지성》 31, 1978, 3.
- 《문예중앙》, 1981, 여름.
- 《한국문학》 137, 1985, 3.
- 《한국문학》 138, 1985, 4.
- 《현대문학》 367, 1985, 4
- 《문학과 사상》 152, 1985, 6.
- 『산울림』, 한겨레, 1988.
- 『한국문예비평연구』 3, 1998.

<작가 연보>

- 1931년 경북 영천 출생.
- 1945년 전주 사범학교 입학.
- 1948년 전주 사범대학교 재학 중 교원 시험에 합격.
학교를 그만두고 수년간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음.
- 1954년 부산 동아대학교 공학부 토목과 입학.
- 1955년 《신 태양》지 주최 전국 학생 문예작품 모집에 소설 「혈육」 당선.
- 1956년 《교육주보》지 주최 교육 소설 모집에 「메뚜기」 당선.
-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수난이대(受難二代)」 당선,
단편 「낙뢰」 발표. 동아대학 중퇴, 군에 입대
- 1958년 단편 「산중고발(山中告發)」 발표. 군에서 의병 제대.
- 1959년 단편 「나룻배 이야기」, 「흰 종이수염」 발표. 교육주보사 기자로 입사.
- 1960년 단편 「이지러진 입」, 「절규」, 「산 까마귀」, 「위령제」, 「홍소」 발표.
- 1961년 단편 「분」 발표. 교육 자료사 편집기자로 입사.
- 1962년 단편 「나무열매」, 「벽지 행」 발표.
- 1963년 단편 「왕릉과 주둔군」, 「두 아낙네」 발표.
대한교육연합회 새 교실 편집부기자로 입사.
- 1964년 단편 「산울림」, 「승부」, 「도적」, 「그 욕된 시절」, 「붉은 언덕」 발표.
- 1965년 단편 「낙도」 발표.
- 1966년 단편 「삼각의 집」, 「바람 속에서」, 「봄 타령」 발표.
- 1969년 단편 「낙발」 발표. 대한교련 새교실 편집부를 그만 두고 집필 생활 시작함.
- 1970년 단편 「죽제비」, 「너무나 짧은 봄」, 「그 해의 삼화」 발표. 《신동아》지에
장편 「야호」 연재 시작. 단편 「죽제비」로 제 7회 한국문학상 수상.
- 1971년 단편 「일본도」, 「죽창을 버리던 날」 발표. 「야호」 연재 완료.
- 1972년 단편 「32매의 엽서」, 「모일 소묘」 발표.
장편 「야호」 와 단편집 「수난이대」 간행.
- 1973년 단편 「원선생의 수업」, 「조랑말」, 「필레 이야기」, 「서울 개구리」 발표.

- 〈부산일보〉에 「안개는 풍선처럼 연재 시작.
- 《여성동아》지에 장편 「월레소전」 연재 시작.
- 1974년 전작 장편 「달섬 이야기」 간행. 「안개는 풍선처럼」 연재 완료.
- 1975년 단편 「수양 일기」 발표. 「월레소전」 연재 완료.
- 1976년 단편 「전차 구경」 「임진강 오리 떼」 「남을 위한 땀」 「탈춤구경」 「일야기」 발표. 단편집 「흰 종이수염」 과 「일본도」 간행.
- 1977년 단편 「노은사」 「준 동화」 「후일담」 「남행 로」 「장사」 발표.
- 1978년 단편 「간이주점」 「성묘 행」 「유령이야기」 「소년 유령」 발표. 장편 「월레소전」 간행.
- 1979년 단편 「산길을 달리는 오토바이」 「두 축하연」 발표
전작 장편 「남한산성」 간행. 단편 「서울개구리」 간행.
- 1980년 〈국제신문〉에 「산중 눈보라」를 연재하다가 신문 폐합으로 중단.
- 1981년 단편 「겨울 저녁놀이」 「고도 행」 발표.
《현대 문학지》에 장편 「산에 들에」 연재 시작.
- 1982년 단편 「신비한 물결」 발표.
- 1983년 단편 「산의 동화」 「바다 밖 이제」 발표. 「산에 들에」 연재 완료.
장편 「산에 들에」로 제 2회 조연현 문학상 수상.
- 1984년 단편 「잉어 이야기」 「화초 갈무리」 「조상의 문집」 발표. 장편 「산에 들에」 간행. 제 1회 요산문학상 수상.
- 1985년 단편 「이국의 신」 「화가 남궁씨의 수염」 발표.
- 1986년 단편 「공예가 심씨의 집」 발표. 《2000년》지에 장편 「은장도 이야기」 연재 시작. 《문학정신》지에 장편 「작은 용」 연재 시작.
- 1987년 장편 「은장도 이야기」 제 1부 연재 완료.
- 1988년 장편 「검은 자화상」 연재 시작. 장편 「작은 용」 연재 완료.
〈전북도민 신문〉에 「쇠불이 속의 혼」 연재 시작.
단편집 「화가 남궁씨의 수염 대표 단편선」 《산울림》 간행.
- 1989년 「검은 자화상」 연재 완료. 「쇠불이 속의 혼」 연재 완료.
장편 「작은 용」 간행. 〈한국경제 신문〉에 「금병매」 연재 시작.

- 『작은 용』으로 제 6회 유주연 문학상 수상.
- 1990년 장편 『징꺽맨이 (쇠붙이 속의 혼 개제)』 간행.
- 1991년 『검은 자화상』 간행.
- 1992년 『금병매』 연재 완료. 전 5권으로 간행.
- 1993년 <한국경제신문>에 『제국의 칼』 연재 시작.
- 1995년 『제국의 칼』 연재 완료. 전 3권으로 간행.
- 1996년 단편 『두 일본인』 발표. 단편 『수난이대』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됨.
- 1997년 산문집 『내 안에 내가 있다』 간행.
- 1998년 보관 문화훈장 받음.
- 1999년 중편 『여 제자』가 『내 마음 속의 풍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됨.
- 2000년 단편 『슬픈 장난감』 발표.
- 2001년 단편 『니체 이리쿵 저리쿵』 발표.
- 단편 『흰 종이수염』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됨.
- 2002년 단편집 『흰 종이수염』 간행.



<Abstract>

**Study on reality recognition and confrontation will
In Ha Geunchan's Novel**

Kang Young-I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Until now, study has been placed on Ha Geunchan's works which deal only with warfare, with the standpoint that he is the author who recognized the Korean war and Japanese imperialism as sources of the nation's suffering, described people's damaged lives because of the war, but reflected it all positively in his nove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author's whole literary mind by reviewing the reality of warfare and colonial times in his work, and by studying his analysis of reality recognition and confrontation which are reflected in the works about absurd society.

For this research, I divided his complete works into 3 temporal phases so that I could thoroughly analyze the characters' acts and mental states.

First of all, in chapter 2, the description of warfare experience was divided into warfare witness and the will to overcome post-disaster. As a result, it became clear that his works show warfare's cruelty which distorted personal life in the historical period, focusing on bodily damage, destruction of a pure world, erosion of values, and women's suffering. The author identifies the will to live that exists in people so that they might be able to adapt to any current situation. At the same time, he suggests how our nation should proceed and overcome the tragedies of war on our path to the future.

In chapter 3, witness of colonial experience was reviewed in two ways, colonial reality and modes of confrontation. It shows a dark colonial reality which attempted to make Koreans Japanese by colonial education, economic plundering, and social suppression. However, it also shows a strong nationalism, and a will to overcome reality by recognizing and criticising an intellectual and people's confrontation pattern. In the works which contain recollections on Japanese imperialism, he continually and sharply points to colonial times through the characters who easily compromise themselves during history. He also shows his anti-Japanese sentiment, and a strong nationalism which he has kept even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Chapter 4 shows that he divides the problems of present society into the absurdity of industrialism and succession of tradition. He emphasizes respect for human life and succession of tradition in a reality which doesn't recognize and does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It also shows the author's self-examination and change of feelings in his old age by expressing struggles while searching for a reason for being (raison d'être), and his interests in the world we might inhabit after death.

In conclusion, his works show a life model which overcomes the subjectivity of present experiences and intends to achieve universal applicability throughout time. His work is very valuable in that he suggests an optimistic and proactive life attitude to the readers while he gives a bright vision to people who live life with strong will and patience without desperation.

